

해방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 관련교육의 변천양상 -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

Exploration on Changing Aspects in Educational
of East Sea and Dokdo Island in Subject
Matter Materials since 1945 Liberation
- By Secondary School Geography Textbooks

2011. 12.

서 태 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서 태 열(고려대학교)
- 연구진
 - 연구조교 : 조경철, 최수미

◆ 연구감리자

- 이 원 갑 연구위원

머 리 말

한·중·일이 열어가는 동북아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국가들 간의 협력과 공조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역으로 이러한 협력과 공조 속에서도 과거 역사와 영토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높은 긴장감과 갈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교과서를 통한 역사왜곡을 더욱 확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영토분쟁은 물론이고 독도 및 동해에 대한 영토적 야욕과 침탈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동북아의 영토적 갈등과 긴장의 지속으로 제대로 된 영토의식을 길러주는 영토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그리고 영토교육의 내용이 시대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기적 영토교육의 실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특히 국민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교육용 교과용 교재들을 통한 영토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교과용 교재는 공식성과 함께 상징성, 실효성 등이 실질적으로 가장 잘 표출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통한 영토도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영토교육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교과용 교재인 중학교 지리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에 기초하여, 해방이후 지금까지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변해왔으며,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에 어떤 문

제점이 있는 지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진행해준 서태열 교수와 연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학 소

차 례

Executive Summary	i
국문요약	iii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2
1) 선행연구의 검토	2
2) 연구방법	4
3) 시기구분	6
제2장 시기별 독도 및 동해교육관련 교재내용의 분석	9
1. 광복 직후~1960년대 초기(산업화이전)	9
1) 교수요목기(1946~1954)	9
2)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16
3) 소결	21
2. 1960년 초기~1980년대 후기(산업화시대)	22
1) 2차 교육과정기(1963~1973)	22
2) 3차 교육과정기(1973~1981)	29
3) 소결	32
3. 1980년대 초기~1990년대 후기(산업화후기)	33
1)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33
2)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45
3)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58

4) 소결	62
4. 2000년 이후(7차 교육과정 이후~)	64
제3장 지리교재를 통해서 본 해방이후 독도 및 동해교육의 전개과정	81
1. 중심내용의 변화양상	81
2. 독도 및 동해관련 지리교과서 기술 내용	85
1) 교수요목기(1946~1954)	85
2)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86
3) 2차 교육과정기(1963~1973)	87
4) 3차 교육과정기(1973~1981)	89
5)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89
6)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91
7)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92
8) 7차 교육과정기 이후(1997~)	92
3. 영토교육의 접근방법의 측면	98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05
1. 요약 및 결론	105
2.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109
참 고 문 헌	111

표 차례

표 2-1. 독도, 울릉도, 동해가 다루어지는 주제들	15
표 2-2. 1차 교육과정기 <인문지리>교과서 내용비교	17
표 2-3. 2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울릉도, 동해	28
표 2-4. 3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울릉도, 동해	32
표 2-5. 4차 교육과정기(1982~)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울릉도, 동해	44
표 2-6.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지리교과서의 독도, 울릉도, 동해	57
표 2-7. 6차 교육과정기 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울릉도, 동해	60
표 2-8.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지리내용	70
표 3-1. 시기별 독도 및 동해관련 중심내용의 변천	83
표 3-2. 독도관련 일본과의 관계일지	94

그림 차례

그림 2-1. 동해안과 울릉도 및 독도 연결항로를 나타낸 그림지도	13
그림 2-2. 해방이후 지리교과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독도사진	14
그림 2-3. 별지로 다루어진 독도의 사진과 설명	17
그림 2-4. 독도사진(최복현 지음, 민중서관, 1956, p.107)	18
그림 2-5. 1차 교육과정기 중등 국토지리 교과서의 울릉도, 독도 내용의 사례	19
그림 2-6. 제1차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해양주권선(평화선)	20
그림 2-7. 2차 교육과정기 지리교과서의 동해단면도	23
그림 2-8. 2차 교육과정기 지리교과서에 실린 독도 사진	25
그림 2-9. 독도가 포함된 우리나라 지도	27
그림 2-10. 2차 교육과정기 독도 사진(최홍준, 1970)	29
그림 2-11. 1970년대 교과서의 한일어업규제도	30
그림 2-12. 4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사진(p.67)	36
그림 2-13.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 제시된 한국의 영해	38
그림 2-14.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 제시된 우리나라 주요 어장도	39
그림 2-15a.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서 제시된 영해범위 지도	42
그림 2-15b. 『고등학교 지리Ⅱ』(오홍석 외 2인)에서 제시된 독도관련 자료들	43
그림 2-16. 4차 교육과정기 “지리 II” 교과서에 실린 독도 사진	44
그림 2-17. 5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가 포함된 지역구분도	47
그림 2-18. 5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사진	48
그림 2-19a. 우리나라 4극과 독도를 표시한 교과서	51
그림 2-19b. 한국의 수리적 위치를 표시한 교과서	51
그림 2-20a.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이 애매하게 표시된 경우(5차)	52
그림 2-20b.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52
그림 2-20c. 독도가 공동조사구역 내에 있는 경우	53
그림 2-21a. 우리나라 영해를 남한에 한정한 경우 I	53
그림 2-21b. 우리나라 영해를 남한에 한정한 경우 II	54

그림 2-21c. 우리나라 영해에 음영처리를 한 경우	54
그림 2-22a.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지리교과서의 독도사진들 I	55
그림 2-22b.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지리교과서의 독도사진들 II	56
그림 2-22c.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지리교과서의 독도사진들 III	56
그림 2-23. 6차 교육과정기에 심화학습의 형태로 제시된 독도관련 내용	61
그림 2-24. 7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독도관련 심화학습의 예	68
그림 2-25.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울릉도·독도·동해관련 내용 I	72
그림 2-26.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울릉도·독도·동해관련 내용 II	73
그림 2-27. 울릉도·독도 관련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I ...	76
그림 2-28. 울릉도·독도 관련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II ...	77
그림 2-29. 울릉도·독도 관련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III ...	78
그림 2-30. 울릉도·독도 관련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IV ...	79
그림 3-1. 바람직한 영토교육의 모형	102

Executive Summary

Exploration on Changing Aspects in Educational of East Sea and Dokdo Island in Subject Matter Materials since 1945 Liberation -By Secondary School Geography Textbooks-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changing aspects of contents related to East Sea and Dokdo Island in secondary school geography textbook since 1945 Liberation and to analyze how education of East Sea and Dokdo Island have been implemented in secondary school. To achieve these aim, described contents in secondary geography textbook related to East Sea and Dokdo Island were examined in terms of 9 periods of National Curriculum, and characteristics of contents was grasped through reconstructed four periods, because contents related to East Sea and Dokdo Island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Korea, Korean government relationship with Japan's financial aids, and international situation around Far-east. In this context, four period are constructed as 1) right after 1945 Liberation ~1960's(before industrialization era) 2) 1960's~1980's(industrialization era) 3) 1980's~1990's(right after industrialization era) 4) 2000's. Characteristics of described contents and focal contents in each periods are as follows.

Firstly, education of DI & ES in first period was implemented actively in spite of disturbance and disorder right after 1945 Liberation. Geography textbook documented and guarded against Japan's ambition of territorial infiltration. And Dealing Dokdo Island under the topic of "Ulleungdo and Dokdo" has made a kind of tradition in geography textbook description. Moreover Tsushima(Daemado)

was dealt as a territory of Korea in this period. DI & ES was dealt more detailedly during the 1st official National Curriculum(NC) and Korea's willingness for protection of territory was strongly expressed as well as guarding out Japan's ambition.

Secondly, education of DI & ES based on the real facts was sustained in the 1960's industrialization era. On the contrast, It was weakened in the 1970's. Particularly, geography textbook almost did not deal with contents related to DI & ES in the 3rd NC under the National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decided by the military regime pursuing interests of military government. It was dark era in education of DI & ES which was aftermath of restora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Japan.

Thirdly, the trend of simplification in the education of DI & ES in 1980's after industrialization era was continued. This kind of trend was influenced by the appearance of "Integrated Social Studies" and social disturbance in the process of power shift from military regime to civilian government. Textbook contents related to DI & ES in the 5th NC were repeated in the same way of the 4th period of NC. In contrast, those of in the 6th NC was enhanc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lthough contents and way of description in middle school geography textbook were limited under the National Authorization System.

Fourthly, education of DI & ES in 2000's after the 7th NC in 1997 was strengthened by affluent contents such as historical facts and events, related persons, issues of historical justification based on academic research results.

In conclusion, two clear periods, the 3rd and 5th period of NC in which education of DI & ES was diminished and weakened was appeared. "Education about DI & ES" was sustained except the 3rd and 5th period of NC, and

“Education from DI & ES” started from the 6th period of NC, and “Education for DI & ES” started from the 7th period of NC.

Key Words : education of East Sea and Dokdo Island, industrialization era, territory, “Education about DI & ES”, “Education from DI & ES”, “Education for DI & ES”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토와 관련된 논쟁들이 부각되고 독도와 동해에 관심이 커지면서 영토교육에 대한 재성찰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영토 및 영역 교육에서 독도 및 동해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동해, 울릉도의 교육은 시대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여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중심적인 교육과정 운영체제에서는 교과서가 국민교육을 가장 잘 대변하고 당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독도교육과 관련한 상황, 접근방법과 대응방안 등을 파악해낼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의 검토

영토 교육의 주요 주제로 자주 등장한 ‘독도’는 독도의 위치와 역사, 독도의 자연환경과 가치, 독도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었지만, 국민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을 위한 독도교육의 체계화와 관련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영토의 의미와 영토 교육의 의의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영토교육에 대한 접근 모형을 제시하는가 하면 기존의 사회과 교과용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용 자료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시도되기도 하였고 영토 교육을 실제적 차원으로 고려하여 학교급 별 동해와 독도에 관한 영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동해 및 독도에 관한 영토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연구(서태열 외, 2009)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영토교육의 현황에 대한 고찰은 동시대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상의 영토 교육 관련 내용의 분석과 영토 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통시적인 고찰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회과라는 교과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교재에 대한 분석은 권영배(2006)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특정한 하나의 시기에 한정적이어서 특정한 시대나 시기를 가로지르는 종단면적인 분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가장 많은 독도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지리교과서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이 없었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문헌인 교과용 교재를 중심으로 연구의 쟁점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연구와 교과용 교재 밖의 한일관계와 관련되는 자료 및 관련되는 교육과정 문서를 포함하는 문헌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때마다 새롭게 공시되고 교과용 교재는 국가의 검정을 받아야만 출판되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이 교과용 교재 내용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용 교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지리교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기별로 공시된 사회과 교육과정 중 “지리” 교과의 내용 요소가 교과용 교재에 쓰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과용 교재인 지리교과서의 내용의 핵심인 시

기별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고찰하였다.

내용분석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기술적 연구법을 위주로 하였으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한일관계 일지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첨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내용 분석을 통하여 시기별 지리 교과용 교재의 독도 및 동해 관련 기술의 내용을 유목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3) 시기구분

광복 이후 약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며 개정되어 왔으며 현행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① 교수 요목기, ② 제 1차 교육과정, ③ 제 2차 교육과정, ④ 제 3차 교육과정, ⑤ 제 4차 교육과정, ⑥ 제 5차 교육과정, ⑦ 제 6차 교육과정, ⑧ 제 7차 교육과정, ⑨ 개정 교육과정 등 크게 9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9개의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다 연구 대상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4개로 재범주화할 것이다. 그것은 산업화, 공업화가 우리나라의 대외국제관계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졌고, 실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주도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광복 직후~1960년대 (산업화이전)
- 1960년대~1980년대 (산업화시대)
- 1980년대~2000년대 (산업화후기)
- 2000년 이후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제시된 산업화 시기구분에 따라 지리교과서에 수록된 독도관련내용을 단순히 정리하기보다, 시기별 중심내용의 변화상을 드러내고, 이러한 변화상과 교과서의 내용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발행체제와의 관계, 그리고 교과서나 교육과정의 외부 환경을 좌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독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 및 외교적 사건으로 이루어진 한일관계의 변화양상에 대해 그 관련성을 중심으로 재분석을 시도하였다.

제 2 장 시기별 독도 및 동해교육관련 교과용 교재의 내용분석

1. 광복 직후~1960년대 (산업화이전)

1) 교수요목기(1946~1954)

1945년 해방이후 긴급조치 시기(1945~1946)에 이어서 1946년에 교수요목에 의해 초, 중등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1954년 문교부령에 의해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성립된 1954년 전까지 실시되었다.

당시의 교과서에서 오늘날과 유사하게 독도, 울릉도, 동해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위치와 영역, 수산, 어업 등 산업부분, 자연지리와 관련된 화산지형, 해안과 섬 또는 도서지방, 각 지방의 생활 중 남부지방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교수요목 시기의 경우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 및 영해 관련 서술을 보면 당시의 영역 의식이 매우 뚜렷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영남지방의 지방지의 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장을 별도로 할애하고 울릉도와 독도의 지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면적, 지형, 산업, 역사, 독도 영유권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 서술할 뿐 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領有)에 관하여서는 당연히 우리의 영토라고 서술하여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제시하였다.

이 시기 교과서에는 독도 뿐 만 아니라 대마도에 관한 언급도 나와 있다. 대한 해협에 위치한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로 보려는 시각이 뚜렷하게 나타나 당시의 매우 높은 영토의식을 엿볼 수 있다.

2)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이지호 지음, 1956, 을유문화사)와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김상호 지음, 1956, 일조각) 등의 교과서가 분석되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1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로 대단원의 제목은 유사하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계통지리처럼 기술하나 후자는 우리나라 지리를 많이 다루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전자의 교과서에서 유독 독도를 별지로까지 포함하여,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화산도이며 무인도이다. 어업과 국방상 중요한 섬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의 저자들이 교수요목기처럼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소결

1945년 해방직후에서 1948년의 미군정기까지는 정부수립으로 혼란상태를 극복하고 국가체계가 급속히 잡혀가던 시기였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교수요목기(1945~1953)에도 높은 영토의식으로 독도관련 내용들이 일찍부터 다루어지고 사진까지도 제시되었다. 1차교육과정기(1954~1963)에도 이러한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 및 정체성이 강조되었고 일제의 침략적 근성 때문에 독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중시하였고 또한 해양주권과 영해수호 의지를 강하게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2. 1960년대~1980년대 (산업화시대)

1) 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이 시기의 중등 지리교과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가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다수의 교과서들이 출판되었다. 동해의 어업과 관련한 중요성이 울릉도 및 독도와 함께 부각되어 설명되어 짐은 물론이고 동해 및 독도가 우리의 영토와 영해임을 드러내고 해양주권까지 기술하고 있다.

2) 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는 중학교의 경우 『중학 사회』로 국정화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토지리』와 『인문지리』의 두 과목으로 분리되었으며 국정에 준하여 문교부가 선정한 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리부분과 국토지리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국정교과서 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들에 비해 중학교에서의 독도와 동해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축소되었으며, 독도를 영토로서 그리고 동해를 영해로 인식시키는 교육이 매우 낮았다. 울릉도는 서술하였으나, 독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형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연결체인 것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있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에도 울릉도만 표시되어 있을 뿐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사진이나 지도 등의 관련 자료들은 국정임에도 불구하고 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교과서들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부라는

정부적 차원에서 독도 및 동해 관련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거나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74년 2월에 독도 의용수비대장이었던 홍순철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하였고,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으로 변경하고 주권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려는 만행을 기획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시기는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는 시기 및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 등이 위축되었던 점과 궤를 같이하여 독도 및 동해 교육은 암흑기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소결

2차 교육과정기(1962~1973)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기시대로 빈약한 자본과 자원으로 산업화가 부족하였던 탓에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의 원조자본 및 식민지배 배상금을 끌어들이어 산업화가 시작하였으므로 이시기의 한국의 군사정부는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본의 침탈을 경계하면서도 소극적인 독도교육관을 유지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해양주권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훼손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3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도입하여 더욱 강력하게 통제했던 군사정부에 의해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기술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는 애국, 애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집필과정에서 정반대로 독도관련 내용의 기술이 억제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군사정부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독도문제를 가능하면 다루기 꺼려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3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지리내용 뿐만 아니라 국정으로 출판된 국토지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

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철에 대한 겁박,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으로 표기하는 등의 사건들은 이 시기의 정황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후반에는 어느 정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있었던 군사정부가 철권통치를 하면서 일본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배력을 가진 미국 또한 동서냉전 체제하에서 같은 진영인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 교육은 전면에서 부각되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3. 1980년대~2000년대 (산업화후기)

1)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4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구조는 3차 교육과정기와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중학교에서는 지리내용이 중학 사회1에 포함되어 국정교과서의 형태로 출판되었으며, 고등학교 지리 I, II 두 권의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로 다양한 출판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3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국정과 다름없었으며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출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2차 교육과정기의 일부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나타나던 소략화의 경향이 3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4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매우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정 내지 국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발행되었던 시기나 해당 학교 급의 경우에는,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 내용이 정부의 입김이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맡은 특정집단에 의해 조정되어 축소되거나 오히려 획일화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5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는 4차 교육과정기의 그것과 거의 동일하며,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지리 I”, “지리 II”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변경되었다. 중학교에서의 지리 내용은 “중학교 사회1”과 “중학교 사회3” 교과서 모두에 나타나며 중1은 지지중심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중3은 계통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중학교 사회 1” 교과서에서는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동해안보다 확대된 ‘동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고, “중학교 사회 3”에서는 자원·인구지리에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이 소략하다. 또한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인 한국지리에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지지단원에서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다루어지며, 거의 1~2개의 문장만으로 매우 간략히 어업상, 군사상 중요하다는 것만을 언급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인 경우는 독도 사진을 함께 실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다룬 위치 부분에서는 동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영역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역을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를 함께 다루기는 하나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제한된 영토 및 영해관을 보여주는 지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에는 “울릉도와 독도”, “울릉도”라는 소주제로 간단하게 다루면서 독도 사진을 함께 실는 정도였다.

3) 6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기의 지리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와 고등학교의 경우 독도 및 동해 교육에서 정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즉 중학교의 경우 독도 및 동해교육이 내용에서 없어지는 반면,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에

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즉 중학교의 경우 5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보다 강력한 통합사회과를 지향함으로써 지리, 역사, 일사의 내용이 더욱 통합되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리 교과 내용들은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사회 과목에 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지리적인 기술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관련된 내용이나 지지 단원에서 독도 및 동해가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 시기는 독도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었다.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들은 5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졌는데, 5차 교육과정의 한국지리에서 다른 독도 및 울릉도 그리고 동해의 내용 보다 풍성해지고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5차 교육과정기의 내용과 지도 및 사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심화 학습으로 “독도문제”를 다루어 일본 측의 억측을 다양한 학술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서 독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4) 소결

4차 교육과정기(1981~1987)는 우리나라의 공업화위주의 산업화를 마무리하던 시기로 구군사정부의 몰락에 이은 신군사정부의 등장으로 일본의 경제적 원조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한·일 간의 마찰이 예상되는 내용은 철저히 규제되었다.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기도 하여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은 중, 고 모두에서 소략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지리 I”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것에 비해 고등학교 “지리 II”는 국토지리를 다루면서 매우 다양하게 독도관련 내용들을 다루었다. 이 시기에 신군부에 의한 교육내용에 대한 강한 통제가 이루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등학교 국토지리에서 독도관련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진 것은 연속적인 일본의 독도망언 등으로 매우 높아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5차 교육과정기(1987~1992)는 민정이양 등의 사회적 혼란의 영향으로, 중학교의 경우 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내용을 거의 답습하여 독도관련 내용은 부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도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기술하거나 매우 소략한 기술만을 하거나 심지어 사진조차 담지 않았다. 특히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도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3차 교육과정기와 유사한 모습이어서,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은 축소된 두 번째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5차 교육과정기는 4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다양한 검인 증된 교과서들이 있었지만 독도관련 내용들은 4차 교육과정기의 내용을 답습하는데 그쳤다.

6차 교육과정기(1992~1997)의 교과서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가 거의 마무리 되었던 시기여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었던 것처럼, 중학교에서는 강력한 내용통제가 고등학교에서는 다양성이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낸다. 중학교 지리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미국적인 통합교육과정의 영향과 국정교과서 개발체제로 인한 기형성으로 중학교에서는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관련된 내용이나 지지 단원에서 독도 및 동해가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 시기는 독도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었다. 이와 대비적으로 6차 고등학교 한국지리에서는 후기산업사회가 추구하는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독도와 동해를 다룸으로써 독도 및 울릉도 그리고 동해의 내용이 보다 풍성해지고 개선되었다.

4. 2000년 이후

7차 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의 지리내용은 6차와 동일하게 중학교 사회 교과서 1(1학년)과 3(3학년)에서 다루어졌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의 “고교 사회”와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의 세권의 심화 선택용 교과서에서 다루어졌다.

“중학교 사회 1” 교과서는 10여 종으로 매우 다양하게 출판되었으며, “남부지방의 생활” 단원에서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이 이전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들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사회 I 교과서의 지리 내용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네 가지 유형으로 다루어진다. 첫째는 독도의 자연 지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비롯하여 독도관련 쟁점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독도관련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으며(권영배, 2006, 156),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이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각 영역별 계통학문을 중심으로 체계가 짜여있으며, 1학년은 주로 지리영역으로 한국 지리과 세계지리가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독도관련 내용들을 보면, 중학교에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영토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며, 영역을 구성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학습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0학년에서는 국토교육과 같은 국민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였던 학생의 학습량 축소과정에서 독도관련 내용들도 축소되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사회 1” 교과서의 전반부 지리영역이(1) 국토와

지리정보 단원을 중심으로 영토교육 관련 내용이 국토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선택과목인 “한국지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내용이 보다 강조되어 다루어지며, 이 부분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 1”보다 깊이 있게 나타나고 있다.

제 3 장 지리교재를 통해서 본 해방이후 독도 및 동해교육의 전개과정

1. 중심내용의 변화양상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내용들은 교수요목기에서 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6차 교육과정기를 넘어서면서 내용의 폭과 깊이의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해방이후 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은 국토의 동단(위치)으로서 독도에 대한 언급, 어업 등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언급,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해양주권선에 대한 언급, 동해관련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3차 교육과정기와 5차 교육과정기에 독도 및 동해관련 교과서 내용이 거의 없어지거나 매우 약화되는 것은 한국-일본 간의 관계와 우리나라의 정부입장, 일본의 우경화된 정부입장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들 관계가 교과서의 내용을 다루는데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는 독도 및 동해 관련 분쟁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기부터는 독도관련 영토교육의 내용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지면서 영토 및 영해교육이 보다 많은 진전을 보였다.

2. 영토교육의 접근방법의 측면

기존의 독도 영토교육을 보면, 독도 및 동해관련 교육내용이 가장 많

이 다루어진다는 지리교과서에서조차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교육방향의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독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접경지대이므로, 넓은 시야를 가진 영토교육과 영해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주권행사 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지어 국제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지속적인 독도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토교육에 있어서의 영토 및 영토와 관련된 사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영토에 대한 교육’, 영토 속에서의 영토에 대한 체험을 중심으로 도덕적 자각, 국토윤리의 형성에 근거한 국토애의 형성과 영역감(sense of territory)를 형성시키는 ‘영토로부터의 교육’, 동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적 자각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윤리, 국가윤리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자신이 국토의 일부임을 자각하는 진정한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는 ‘영토를 위한 교육’의 세 가지 접근방법(서태열 외 2인, 2007)에 따르면, 그동안의 독도 및 동해교육은 다음과 같이 변해왔다.

교수요목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3차와 5차의 단절을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다만 독도에 대한 교육의 범위는 다양하지만, 독도교육내용의 체계화와 범주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6차 교육과정기에서는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은 학생의 탐구나 조사 등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독도로부터의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6차 교육과정기에 독도가 하나의 탐구주제 내지 학습주제로 등장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학습내용과 심층적 탐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7차 교육과정기를 넘어 2000년대에 이르면 독도관련 기술내용들이 체계화되면서 “독도를 위한 교육”이 나타나고 있고 바람직한 독도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의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독도 및 동해관련 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에 부응하여, 독도 및 동해와 관련한 영토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왔으며 그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방이후 교과용 도서에 나타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 시기별 독도 및 동해관련 교과서 기술내용의 특징과 중심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에는 나름대로 독도 및 동해교육은 영토 및 영해교육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방직후처럼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한 야욕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토수호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심지어는 울릉도의 사진은 없어도 독도의 사진을 실어 독도를 강조하였다. 산업화시대를 여는 1960년대 산업화초기는 이러한 독도와 관련된 사실위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나 1970년대에는 훼손되었던 적이 있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만들어진 한일관계의 후유증에 따른 것이다.

산업화 후기 시대를 보면, 1980년대는 독도교육이 다시 회복되었으나 4차 교육과정기처럼 간략하게 기술하는 경향이 연속되었다. 5차 교육과정기에 독도관련 내용기술의 간략화가 연속된 것은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정권의 이양기로 혼란기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6차 교육과정기가 시작되면서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1990년대부터 독도교육 내용의 기술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본격적으로 심화학습 및 탐구주제로서 채택되어 독도나 동해관련 내용이 1쪽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7차 교육과정기가 시작되는 2000년대부터는 독

도관련 영토교육의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 및 사건, 관련 인물, 쟁점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지면서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이 보다 많은 진전을 보였고 많은 연구성과들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다음, 독도교육의 개념을 “독도에 대한 교육”, “독도로부터의 교육”, “독도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수요목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3차와 5차의 단절을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6차 교육과정기의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은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독도로부터의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기를 넘어 2000년대에 이르면 독도관련 기술내용들이 심화되면서 “독도를 위한 교육”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첫째, 독도 및 동해 관련 교육내용의 체계화와 범주화가 필요하고, 둘째, 독도에 대한 교육내용과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입체적, 종합적이어야 하며, 셋째, 독도관련 내용은 민족의 역사이자 국토공간의 역사로서 기록하고 교육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이 연구는 영토교육이 지향하는 국가의 존속, 국민의 일체감과 정체성 형성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의 학교교육에서의 독도 및 동해를 비롯한 영토교육의 전반을 내용, 방법, 방향의 측면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람직한 영토교육을 위한 교재의 구성과 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토와 관련된 논쟁들이 부각되고, 국제법상에서나 실질적인 해양 생활과 관련하여 영토의 측면 뿐 만 아니라 영해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독도와 동해에 관심이 커지면서 영토교육에 대한 재성찰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독도·동해는 영토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절대적인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프로티어이므로, 영토 및 영역 교육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도, 동해, 울릉도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국가 유기체론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단순한 주변부에 위치한 작은 섬이 아니라 국가의 육체적 피부와 같으며, 국가의 말초신경부에 위치한 섬이므로, 독도는 정치지리 및 지정학적, 국경적 측면에서 갖는 지리적 중요성, 경제적, 교통상, 영해 획정상 등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국민교육적 중요성이 대단히 큰 장소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이 독도는 국토의 매우 중요한 장소이므로,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독도와 동해에 관련된 국민의 국토 교육이 어떤 지향성으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져 왔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정한 시대에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학교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는 해당 시대의 교과용 교재를 보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중심 중앙집중적인 교육과정 운영체제에서

는 교육용 매체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육용 자료인 교과서가 국민교육을 가장 잘 대변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인 교과서에는 특히 당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개정된 내용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상황, 접근방법과 대응방안 등을 읽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독도 및 동해관련 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에 부응하여, 독도 및 동해와 관련한 영토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왔으며 그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위하여, 해방이후 교과용 도서에 나타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의 검토

영토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영토교육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동해와 독도 관련 영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토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토 교육의 주요 주제로 자주 등장한 ‘독도’는 독도의 위치와 역사, 독도의 자연환경과 가치, 독도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었지만, 국민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을 위한 독도교육의 체계화와 관련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 교육의 방향 모색’(서태열 외,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영토의 의미와 영토 교육의 의의, 영토교육에 대한 접근 모형의 제시를 통해 독도교육의 체계화가 시도되었으며, 일부 기존의 사회과 교과용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용 자료들에 대

한 분석도 함께 시도되었다.

이후 동해 및 독도에 관한 영토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한 ‘동해 및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과 과제’(서태열 외, 2009)에서는, 영토 교육을 실제적 차원으로 고려하여 학교 급 별 동해와 독도에 관한 영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봄으로써, 영토 교육의 학교 급 별 목적과 내용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여 방향 모색을 꾀하였다.

그동안 영토교육의 현황에 대한 고찰은 동시대의 학교 급 별 교육과정상의 영토 교육 관련 내용의 분석과 영토 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활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사회과라는 교과와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교재에 대한 분석은 권영배(2006)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특정한 시기에 한정적인 즉 특정한 시대나 시기를 가로지르는 종단면적인 분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특정한 시기에 제한하여 기존의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독도 및 동해교육을 연구 즉 특정시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것과 차별화하여, 특정 과목 즉 지리의 교재를 이용하여 해방이후 여러 시기에 걸쳐 종단면적으로 분석하여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횡단면적인 연구는 그동안의 독도 및 동해교육의 흐름을 파악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독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 연구는 교과용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는 식의 연구가 아니라, 내용분석 및 담론적 해석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교과용 교재에 기술된 내용에 나타나는 독도 및 동해인식의 유형을 영토교육의 개념적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할 것이다. 둘째, 동해 및 독도 관련 사건 및 사고 특히 한일관계관련 역사적 사건 등에 대한 시기별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및 동해관련내용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 독도 및 동해관련 인식이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영토 인식에 대한 변화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산업화과정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에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해양국 일본의 영토적 확장 및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동북아에서 가장 첨예한 충돌지역 중의 하나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으로 말미암아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관계 및 한일관계의 부침에 따라 독도의 영토로서의 본질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도 하고 완전 복구되기도 하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상을 포함하는 거액의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려던 시기에 독도는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독도침탈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하더라도, 밀약을 통해 독도의 영토적 지위를 애매하게 만들고, 독도를 포함한 동해가 가진 우리 영해의 기능을 축소하여 그들의 해양 이익을 상당부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하겠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대상은 광복 이후 지리교과의 교과용 교재에 나타난 독도 및 동해 관련 교육 내용이다.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의 대상인 지리 교과용 교재를 모두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3차 교육과정, 제 4차 교육과정, 제 5차 교육과정, 제 6차 교육과정 및 현행인 7차와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광복이후의 혼란한 시기였던 교수 요목기와 제 1차, 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과용 교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한국 교과서 박물관이 교수 요목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교과용 교재를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지만, 해방전후의 교과서들은 희귀본으로 사설박

물관 등에서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인 지리 교과용 교재에 수록된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교육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국내외의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의 쟁점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연구방법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때마다 새롭게 공시되고 교과용 교재는 국가의 검정을 받아야만 출판되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이 교과용 교재 내용에 크게 영향을 준다. 지리교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기별로 공시된 사회과 교육과정 중 “지리” 교과의 내용 요소가 교과용 교재에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용 교재인 지리교과서의 내용의 핵심인 시기별 교육과정 문서를 고찰하는 문헌연구도 부차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2) 내용분석

내용분석은 기술적 연구법의 한 연구 방법으로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내용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Waples와 Berelson은 “체계적 내용 분석(systematic content analysis)이란 독자나 청자에게 주어지는 자극의 성질이나 상대적 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서술된 내용을 정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Kaplan 은 “내용 분석의 기법은 체계적이고 양적인 성질을 지닌 의사소통에서 의미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내용 분석의 결과는 분류체계에서의 각 범주에 속하는 신호 또는 신호군이 나타나는 빈도를 밝혀준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을 통하여 시기별 지리 교과용 교재의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3) 시기구분

이 연구는 특정한 시대의 교육용 교재에서 독도와 동해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재는 단순히 교육용 자료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교육의 지향성과 방법에 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한 시대에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접근방법이 이용되었으며,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사회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내용의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지식은 사회적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되고 활용되면서 많은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교육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사회와의 관련성, 즉 유관적합성이 크게 영향을 주는데 교육 과정의 개정 시 학습자를 둘러싼 사회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에 맞추어 수정, 보완된다. 교과용 교재는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집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할 때마다 교재 또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광복 이후 약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며 개정되어 왔으며 현행 개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① 교수 요목기(1945~1953), ② 제 1차 교육과정(1953~1963), ③ 제 2차 교육과정(1963~1973), ④ 제 3차 교육과정(1973~1981), ⑤ 제 4차 교육과정(1981~1987), ⑥ 제 5차 교육과정(1987~1992), ⑦ 제 6차 교육과정(1992~1997), ⑧ 제 7차 교육과정(1997~2006), ⑨ 개정 교육과정(2007~) 등 크게 9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9개 시기의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연구 대상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4개로 재범주화할 것이다. 그것은 산업화, 공업화가 우리나라의 대외국제관계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졌고, 실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주도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광복 직후~1960년대 초기(산업화이전)
- 1960년대 초기~1980년대 초기(산업화시대)
- 1980년대 초기~1990년대 후기(산업화후기)
- 2000년 이후

이에 따라 각 시기별의 교과용 교재를 영토교육의 접근방법, 교과서의 중심내용, 독도 및 동해 인식의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주요 교과용 도서들의 목록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요목기(1945~1953년)

중학교 사회생활과 자연환경과 인류생활(1949).

중등사회생활과 자연환경과 인류생활(1950) 을유문화사.

중학교 사회생활과 우리나라생활(1950) 을유문화사.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1947), 정음사.

중등사회생활과 우리나라(지리부분)(1949), 탐구당.

중등사회생활과 최신우리나라지리(1953), 민교사.

1차(1953년~1963년)

중학 다른나라지리(1956), 탐구당.

중학 최신국토지리(1956), 민중서관.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이지호 지음, 1956), 을유문화사.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김상호 지음, 1956), 일조각.

고등 인문지리(1956), 장왕사.

2차(1963~1973년)

중학 사회1(김경성 외 5인, 1966), 법문사.

중학 새로운 사회(노도양 외 6인, 1971), 사조사.

고등 인문지리(김상호, 1966), 일조각.

고등 지리1(최흥준, 1970), 동아출판사.

고등 표준지리1(이지호, 1972), 삼화출판사.

3차(1973년~1981년)

중학 사회1(1979),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고등 국토지리(1979), 문교부.

4차(1981년~1987년)

중학 사회1(1985), 문교부.

고등 지리1(1984), 금성출판사.

고등 지리2(1985), 장왕교재연구원.

5차(1987년~1992년)

중학 사회1(1989), 교육부.

중학 사회3(1991), 교육부.

고등 한국지리(1989), 금성.

고등 한국지리(1991), 능력개발.

6차(1992~1997년)

중학 사회3(1997), 교육부.

고등 공통사회(하)한국지리, 보진재.

7차(1997~2006년)

중학 사회1(2001), 고려출판.

중학 사회1(2001), 동아출판사.

중학 사회1(2001), 지학사.

고등 사회(2002), 대한교과서.

고등 한국지리(2002), 법문사.

제 2 장 시기별 독도 및 동해교육관련 교재내용의 분석

1. 광복 직후~1960년대 초기(산업화이전)

1) 교수요목기(1946~1954)

1945년 해방이후 긴급조치 시기(1945~1946)에 이어서 1946년에 교수요목에 의해 초, 중등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1954년 문교부령에 의해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성립된 1954년 전까지 실시되었다. 교수요목기의 중등학교 교재는 한권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그 용법을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었는데, 지리교과서도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정홍현, 이기섭, 이부성 저, 정음사)의 머리말에서 언급한대로 교과서는 중등학교로 표기하고 초급중학에서의 사용법과 고급중학에서의 사용법을 적어놓고 있다.

당시의 교과서에서 오늘날과 유사하게 독도, 울릉도, 동해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는 주제들은 위치와 영역, 수산, 어업 등 산업부분, 자연지리와 관련된 화산지형, 해안과 섬 또는 도서지방, 각 지방의 생활 중 남부지방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루어지는데, 다음 <표 2-1>과 같다.

이 연구에서 확보가 가능하였던 교수요목기에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여러 권의 교과서 중에서 『조선지리』등과 같은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울릉도, 동해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정홍현, 이기섭, 이부성 저, 정음사) 1946년판 교과서를 보면, ‘위치와 영역’ 단원에서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의 위치를 동서남북의 4극으로 나타내고 있다. 극동을 “경북 울릉도 동단 동경 130도 57”분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경도를 나타내는 동경 130도 57

분은 독도의 정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즉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만 지명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4극을 표현하면서 모두 동단, 서단, 남단으로만 표기하는 통일된 표기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해인 1947년판 이 교과서를 보면 분명해진다. 1947년판에는 지명이 아니라 “동단”으로 표기하던 것을 “죽도”라고 명칭을 사용하여 독도를 표기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토의 4극의 표현방식을 “마안도, 마라도”와 같이 구체적인 지명으로 모두 표기하고 있어서 영토 표시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보였다고 하겠다.(이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1946년경에 있었던 독도 및 영토관련 사건들에 의해서 인식이 높아졌거나, 저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을 보여준다). 1947년의 이 교과서에 나타나는 지명이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독도에 대한 최초의 표시이며, 당시에는 “죽도”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미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고,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시아(Asia) 대륙 동남쪽에서 동조선해와 황해 사이에 남쪽으로 쭉 뻗어나간 반도이다...”(p.7)라고 하며 동해를 동조선해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우리땅 조선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의 구체적인 명칭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에서 비판하는 바와 같이 막연한 방향의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책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동조선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p.10에서 해양에 대한 언급에서도 “동조선해안”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이나, 이 교과서에서 사용한 “동조선해”가 조선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인 “남조선해”와 대비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본다. 또한 영남지방의 지방지에서도 동조선해라는 지명을 언

급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도 울릉도는 이미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는 편이었다. 영남 지방의 동부산지에서 경주, 포항, 방어진, 울산 다음으로 울릉도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면, 중요한 지역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 교과서의 29쪽에서는 울릉도의 위치, 면적, 지형, 농업, 어업,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2개 문장으로 울릉도를 설명하고 있다. 울릉도의 지형에 대한 설명을 보면, “동조선해 동남쪽 바닷가운데에 있는 외딴 섬으로 넓이 약 73m²(넓이가 정확하지 않음)인 화산암으로 된 화산도”(p. 37)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오늘날처럼 지형적으로 독도와 긴밀하게 연결된 지형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의 교과서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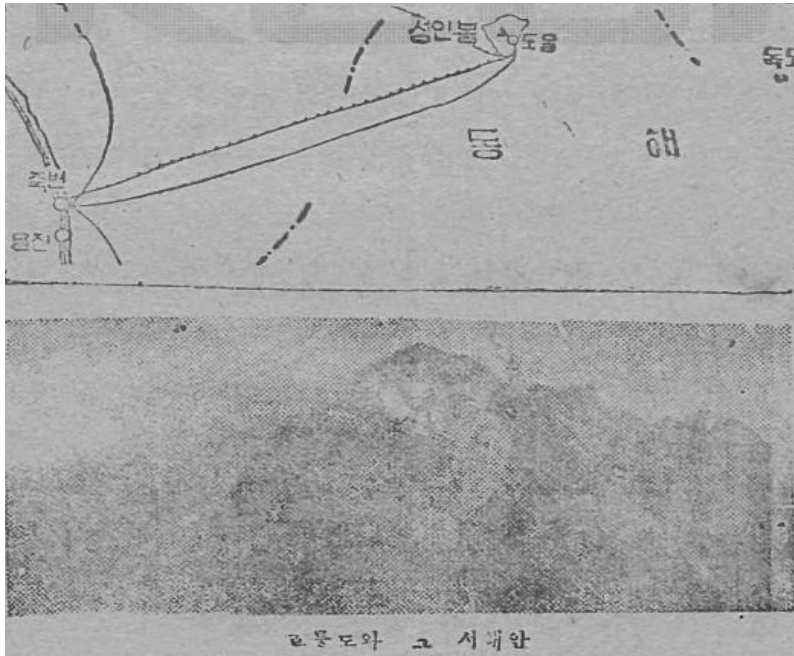
한편, 이 교과서에 실린 지도의 대부분은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남지방도와 조선의 지질구조도에서 울릉도는 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등사회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노도양 저, 탐구당, 1949)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 조선반도의 동쪽에는 동해가 있고, 서쪽에는 황해를 끼고 중화민국과 마주 보고 있으며,...”(p.1)라고 하며 동해를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4극으로 ‘울릉도 독도’의 경도를 표시하였다. 영남지방의 지방지에서 울릉도, 독도의 지명이 언급되었으며, “울릉도는 바다위에 위치한 만치 해양성 기후를 이루어 겨울에는 부산보다도 따뜻하고, 년우량은 1,700mm이나 된다.”라고 하면서 울릉도의 기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남지방의 지방지의 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장을 할애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지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면적, 지형, 산업, 역사, 독도 영유권 문제를 2장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서술

하였으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한 60해리 가면 독도(獨島)라는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은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되었는데 해식지형을 이룬다, 물개 등이 살아 이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이 섬의 영유(領有)에 관하여서는 일본과 사이에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다”(p. 152-153)라고 서술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였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 해방이후 최초의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라는 제목으로 항상 불려서 지리교과서에서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다음의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그림지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교과서에서의 우리의 영토와 관련된 지도표기에서 특별한 점은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처럼 거의 함께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보이며, 이후에 다를 정갑의 교과서에서도 대마도의 귀속문제를 “동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고 대한해협을 지나 대마도가 있다.”(p. 136)와 같이 매우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도서지방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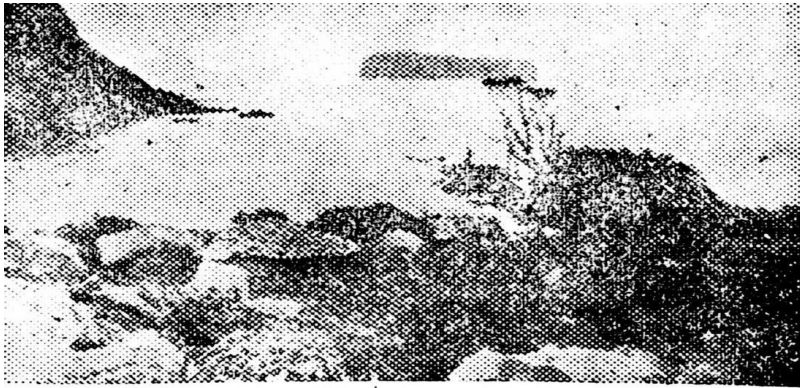
*출처: 노도양, 1949, p.151.

| 그림 2-1 | 동해안과 울릉도 및 독도 연결항로를 나타낸 그림지도

한편,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생활』(정갑 저, 을유문화사, 1950) 교과서를 보면, 노도양의 교과서가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깊이있게 다루는데서 더 나아가 대마도의 귀속까지 다루는 매우 강한 영토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즉 당시의 지리 교과서 저자들은 영토주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는 대비적으로 대마도에 이르기까지 영토주장에 대한 매우 강한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나라’ 단원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Asia) 대륙의 동부에 있어, 북에서 남을 향하여, 동해와 황해 사이에 돌출한 반도이다.”라고 서술하여 동해를 언급하고 있으며, 울릉도의 동단의 수리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지의 ‘남부 지방’의 단원에서 울릉도의 사진과 함께 울릉도의 위치, 면적, 지형, 산업, 교통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울릉도에서 동쪽을 향하여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가장 동쪽(동경 131° 57') 섬인 독도(獨島-주위 2km)가 있다”(p. 143)라고 서술하면서 아래와 같이 독도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진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 출처: 정갑, 1950, p.143.

【그림 2-2】 해방이후 지리교과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독도사진

또한 ‘자연환경’ 단원의 지질, 임업에서 울릉도를 언급하였으며, 동해안의 수산업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동시에 표시되지는 않았다.

『중등사회생활과 최신 우리나라 지리』(이지호 저, 민교사, 1953) 교과서를 보면, ‘동남부 지방’의 단원에서 ‘동해의 고도 울릉도’(p. 124) 라는 제목으로 1단락에 걸쳐 울릉도의 형성원인, 지형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단원의 제목을 보면, 동해를 단순히 동해안 주변의 범위를 지닌 바다가 아니라 울릉도가 속한 주변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모두 동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해의 한 부분으로서 울릉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남부 지방’의 단원에서 기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외 우량 분포에 있어서 특수한 지방은 울릉도이다. 울릉도의 1년 우량은 1600mm에 달하고, 또 계절에 따른 변화는 극히 적으나, 특히 겨울의 우량이 가장 많아 1년 우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은 지역을 형성하였고”라고 하여 울릉도의 특수한 기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교수요목기의 세계지리 관련 교과서로는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부분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을유문화사, 1949)과 중등 사회생활과 『최신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이 있으나, 독도, 동해, 울릉도 관련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표 2-1 | 교수요목기에 독도, 울릉도, 동해가 다루어지는 주제들

교과서명	위치와 영역	해안	지방지	화산지형	지질	임업	수산업	기후	지도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 (정홍현, 이기섭, 이부성 저, 정음사, 1947)	동조선 해 지명, 우리나라의 동단의 수리적 위치	동해안의 울릉도 지명	영남지방의 동조선해 지명, 울릉도 설명	-	-	-	-	-	울릉도 표시
중등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노도양 저, 탐구당, 1949)	동해 지명	-	영남지방의 울릉도, 독도 지명, 울릉도 기후, 울릉도와 독도 단원, 동해어장	-	-	-	-	-	-
중학교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생활’ (정갑 저, 을유문화사, 1950)	동해 지명, 울릉도 수리적 위치	-	남부지방의 울릉도, 독도 설명 및 사진	-	울릉도 지명	울릉도 지명	동해 어장	-	-

| 표 2-1 | 교수요목기에 독도, 울릉도, 동해가 다루어지는 주제들(계속)

교과서명	위치와 영역	해안	지방지	화산지형	지질	임업	수산업	기후	지도
중등사회 생활과 최신 우리나라 지리 (이지호 저, 민교사, 1953)	-	-	동남부 지방의 울릉도 단위, 동해어장	울릉 도 지명	-	-	-	울릉 도 강우 량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 부분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을유문화사, 1949)	-	-	-	-	-	-	-	-	-
중등 사회생활과 최신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학문화사, 1950)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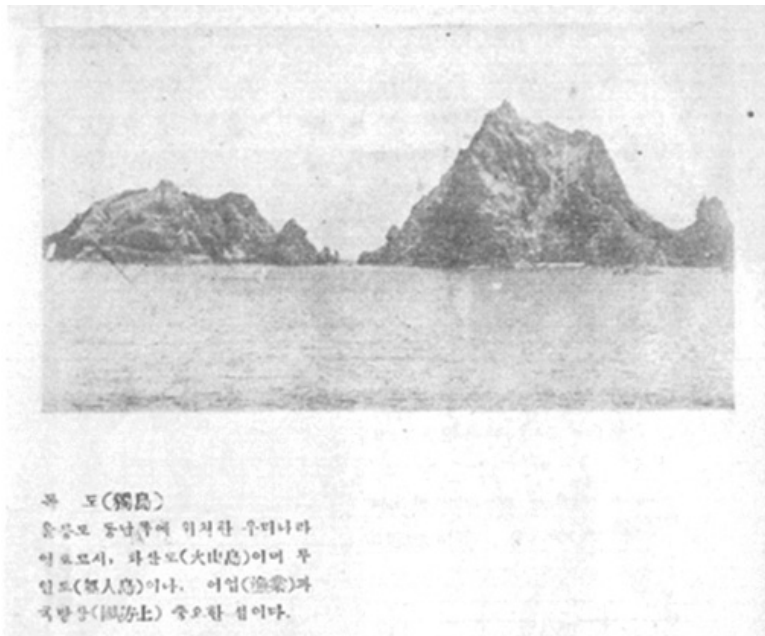
2)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이지호 지음, 1956, 을유문화사)와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김상호 지음, 1956, 일조각)의 두 개의 교과서만이 확보되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1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이나 대단원의 제목은 유사하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1단원은 “자연과 인간과의 교섭양식”이 주제인데, 다음 <표 2-2>와 같이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계통지리처럼 기술하나 후자는 우리나라 지리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특이한 점은 전자의 교과서에서는 유독 다음의 <그림 2-3>과 같이 독도를 별지로서 포함하고 있으며,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화산도이며 무인도이다. 어업과 국방상 중요한 섬이다”라고 확실히 밝히고 있다(『고등학교 사회

과 인문지리』(이지호 지음, 1956, 을유문화사, 별지). 이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도 교과서의 저자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2-2 | 1차 교육과정기 <인문지리>교과서 내용비교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 (이지호 지음, 1956, 을유문화사)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 (김상호 지음, 1956, 일조각)
제1. 인간과 자연과의 교섭 1. 세계 각지의 생활양식 2. 인간과 자연과의 교섭 3. 인간의 거주지 4. 가옥과 환경 5. 취락의 성립과 발달 6. 취락의 형태와 기능 7. 지도의 이해	단원 I 자연과 인간과의 교섭양식 제1장 지리적 입장에서 본 자연과 인간 제2장 우리나라의 벼농사와 보리농사 제3장 우리나라의 논밭분포 제4장 우리나라의 기후 제5장 취락의 위치와 형태 제6장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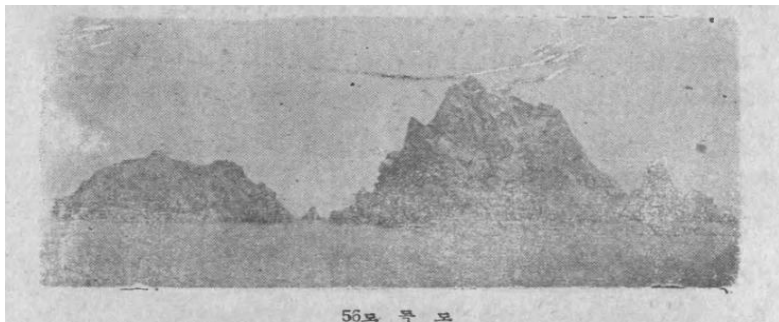
* 출처: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이지호 지음, 1956, 을유문화사, 별지)

| 그림 2-3 | 고등학교 지리책에서 별지로 다루어진 독도의 사진과 설명

그리고 우리나라 지리를 다루는 지리 교과서는 교수요목기처럼 중, 고 등의 내용이 혼재된 교과서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교과서로는 『최신 국토지리』(최복현 지음, 민중서관, 1956)가 있다. 이 교과서를 보면, 매우 독특하게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다만 교과서에서 사용된 지도들에서는 울릉도까지는 매우 상세하게 표시되지만 독도를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남부지방의 일부로써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장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한 야욕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토수호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울릉도”라는 주제로 기술된 내용의 말미에 독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울릉도 관련 사진의 게재 없이 독도 사진 <그림 2-4 참조>를 싣고 있어 독도가 매우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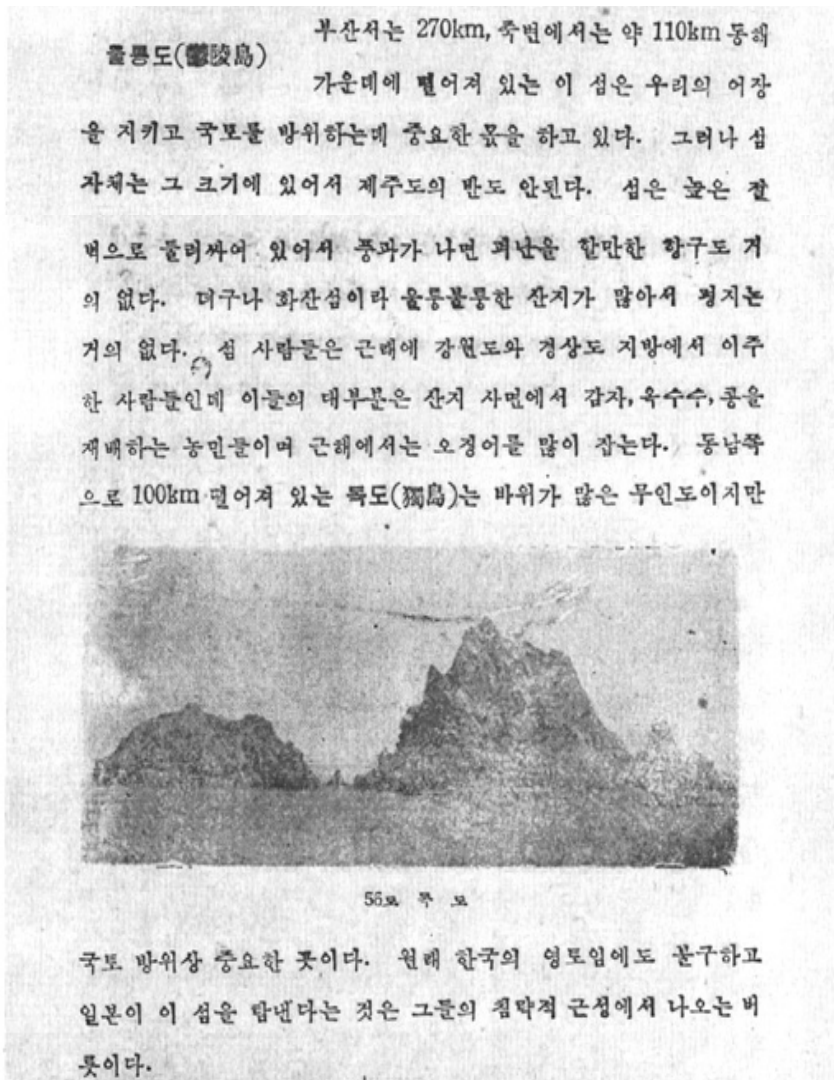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바위가 많은 무인도 이지만 국토방위상에 중요한 곳이다. 원래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섬을 탐낸다는 것은 그들의 침략적 근성에서 나오는 버릇이다.”(최복현, 1956, p.107)



* 이지호의 <인문지리>에 나오는 사진과 상당히 유사한 각도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나,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 그림 2-4 | 독도사진(최복현 지음, 민중서관, 1956, p. 107)

또한 이 시기에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의 끝의 한 부분으로서 “131°52” (독도)로 표기하여 동쪽의 끝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은 당시의 워크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현대사, 1960, Work Book, p.1)



(최복현, 1956, 106~107)

| 그림 2-5 | 1차 교육과정기 중등 국토지리 교과서의 울릉도, 독도 내용의 사례



* 출처: 최복현, 1956, p.45

| 그림 2-6 | 제1차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해양주권선(평화선)

한편, 이 교과서에는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인식에서 영토와 영해로 인식하였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료가 실려 있다. 즉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해양주권선과 1952년에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을 자세히

드리내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의 해양주권의 범위를 독도는 물론 포함하여 동경 130도까지 확장시키고 있는데,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나타낸 지도는 <그림 2-6>과 같다.

“우리 한국은 우리 근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가의 예에 따라서 해양주권선을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모하게도 이 주권선을 넘어서 자주 우리의 어장을 노략질하고 있다. 이 어장은 60만 어민의 생명선인 동시에 우리의 중요한 식료의 생산터인 것이다. 영토와 마찬가지로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
(최복현, p.45)

3) 소결

1945년 해방직후에서 1948년의 미군정기까지는 정부수립으로 혼란상태를 극복하고 국가체계가 급속히 잡혀가던 시기여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였던 시기이면서도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 등이 매우 중요하였던 시기였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교수요목기(1945~1953)에도 높은 영토의식으로 독도관련 내용들이 일찍부터 다루어지고 사진까지도 제시되었다. 영토에 대해 예민했던 시기였던 만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야욕을 경계함은 물론 더 나아가 대마도의 귀속문제까지 교과서에서 다룰 정도였다. 1차 교육과정기(1954~1963)에도 이러한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 및 정체성이 강조되었고 일제의 침략적 근성 때문에 독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중시하였고 또한 해양주권과 영해수호 의지를 강하게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즉 한국이 전통사회에서 식민지사회로 그리고 다시 해방을 맞으면서 비록 산업화에는 뒤쳐졌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던 시기에는 강한 영토의식 및 독도교육 내용이 기술되었다.

2. 1960년 초기~1980년대 후기(산업화시대)

1) 2차 교육과정기(1963~1973)

이 시기의 중등 지리교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지리교과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다수의 교과서들이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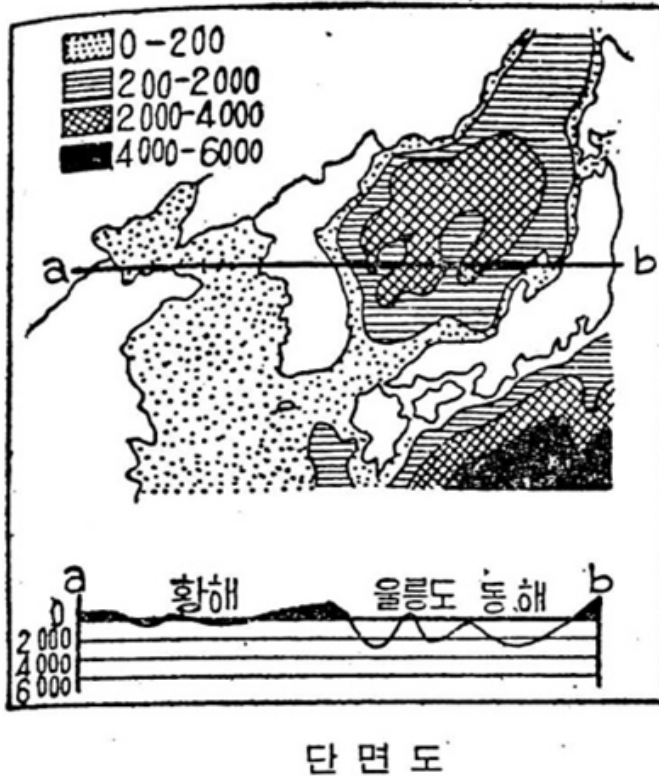
먼저 『중학 사회 I』(김경성 외 5인, 법문사, 1966)을 보면, “남부지방” 단원에서 (p.74~75) 울릉도의 위치, 지질, 기후, 인구, 수산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를 별도의 단락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야욕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함께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 남동쪽 100km 지점에 있는 화산도이며, 경사가 급한 동도와 서도의 두 섬으로 되어 있다. 독도는 원래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것을 탐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 등대를 건설하고 경비병을 파견하고 어민을 보고하고 있다.”(p.75)

또한 독도 부근에는 어족자원이 많아서 제주도의 해녀가 이곳까지 출어한다고 기술한 점으로 보아 당시에 제주도와 울릉도 및 독도가 우리 국토로서 서로 연결되어 나름대로 활발한 어업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교과서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연지형을 다루면서 동해에 대한 인식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있으며,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넓은 바다를 모두 동해로서 인지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해양단면도를 싣고 있다.

다음으로 『중학 새로운 사회』(노도양 외 6인, 사조사, 1971)를 보면, 단원 2의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남부지방의 각 도서를 다루면서 제주도와 울릉도를 다루었는데, 울릉도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독도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

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상세히 다루고 있다.



* 출처: 김경성 외, 1966, p105

| 그림 2-7 | 2차 교육과정기 지리교과서의 동해단면도

“울릉도의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독도라 하는 무인도가 있는데,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되었으며, 해식에 의해 급경사를 이룬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영토인데, 일본은 이를 탐내어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도는...광해군 때부터 일본과의 사이에 80년간이나 말썽이 있었다가 결국 숙종 21년 우리나라 영토로 재확인되었다. 1914년 이래 지금과 같이 경상북도에 속하게 되었다”(p.77)

또한 이 교과서에는 독도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기존의 바다에서의 촬영이 아니라 섬 내부에서의 촬영된 것으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진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경우, 입수 가능하였던 『고등 표준지리 I』(최홍준, 동아출판사, 1970)와 『고등 표준지리 I』(이지호, 삼화출판사, 1972)의 두 개의 교과서를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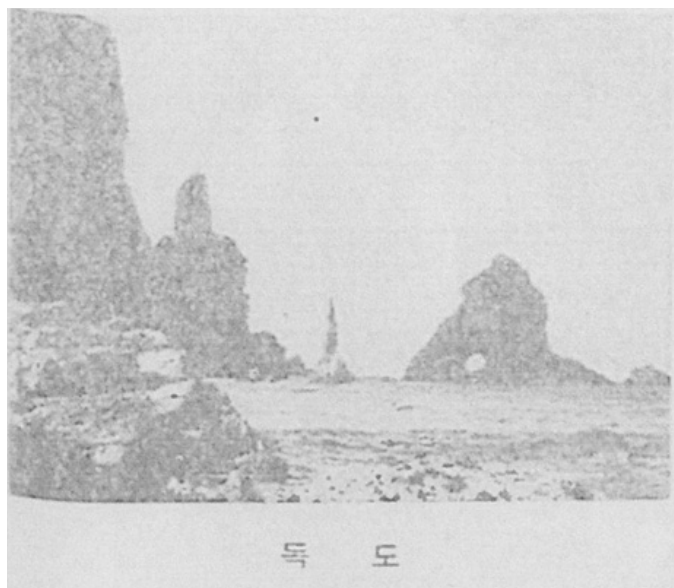
『고등 표준지리 I』(동아출판사, 최홍준, 1970)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아시아 대륙 동안에 있는 반도국”으로 규정하면서 해양으로의 진출에 불리한 위치는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걸음 앞서서 개화를 이룩한 일본에게 침략의 희생이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통·통신 기관이 발달함에 따라서 세계의 거리가 단축되었으므로 아시아와 태평양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화와 접하는 데에 불편한 위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p. 5)

또한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지도를 보면, 지리교과서에 실린 독도를 포함한 최초의 전도로 보이는 지도가 실려 있다.

또한, 동해의 어업과 관련한 중요성이 울릉도 및 독도와 함께 부각되어 설명되어짐은 물론이고 동해 및 독도가 우리의 영토와 영해임을 드러내는 해양주권까지 기술하고 있다.

“해방 후에는 기술이 앞선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6·25 사변의 혼란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획고는 30만t을 전후할 정도로 낙후하고 말았다. 이 무렵에 일본은 다시 수산업의 세계 제패를 노려서 어족이 많은 우리나라의 근해를 침범하는 일이 많았다. 할 수 없이, 1952년 1월 15일에 여러 외국의 예를 따라서 해양 주권선을 선포하여 허가 없이 이 선을 넘고 우리나라 근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과 선박을 막았다.”(p.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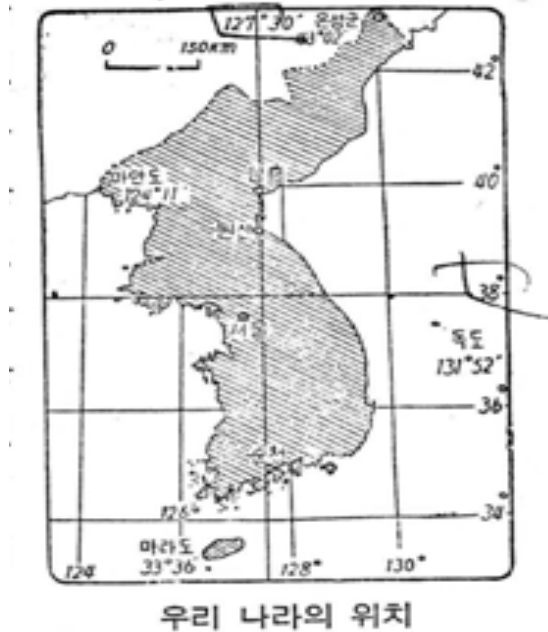
* 출처: 노도양 외 6인, 1971, 『중학 새로운 사회』, 사조사, p.77.

| 그림 2-8 | 2차 교육과정기 지리교과서에 실린 독도 사진

그리고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와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이 교과서의 내용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p.93에서 “한일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전관수역·공동 규제 수역·공동 자원 조사 수역을 설치하여 일본과 서로 협력하면서 어업 발달을 도모하게 되었다”라고 서술하면서, 전관수역은 연안으로 제한하고 공동규제수역은 일본과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하는 수역으로 공동자원조사수역은 자원조사를 공동으로 하는 지역으로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공동규제수역에 대해 “어획고를 제한하고 양국 감시선이 공동으로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과거 일본이 도획해간 연간 어획량 30~35만t를 16.5만t로 제한 할 수 있게 되었다”(p.93)고 각 주를 달고 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일어업협정이 현실적인 상황논리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앞선 기술력에 의한 도획을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선진국으로서 넓은

시야를 가진 일본의 협상력을 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빌미를 준 점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다음의 <그림 2-11>의 교과서에 실린 한일어업규제도를 보면, 물론 12해리 영해 즉 전관수역이 보호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울릉도 인근 해역마저도 12해리선은 있지만 공동규제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표시하였고, 독도 인근 해역의 영역범위는 12해리선이 공동자원조사수역을 넘어서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인식과 어업발달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은 1950년대 지리교과서에 실린 해양주권선 즉 이승만평화선보다 매우 후퇴한 것이다. 또한 이 교과서는 “일본이 지불한 배상금과 여러 외국의 차관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우수한 어선과 어로 시설을 도입하여 어업의 현대화에 힘쓰고 있다”는 진술로 보아 당시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일협정을 서둘렀던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한편, 이 교과서에서는 남부지방을 다루면서 울릉도를 기술하고 있으며, 역시 말미에는 독도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울릉도는 지형, 기후, 식생, 교통, 농업 부문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p.240~241에서는 “동해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울릉도는 해식애로 둘러싸인 화산도이며 중앙에 성인봉이 솟아 있다. 성인봉 북쪽에는 나리 칼데라가 있고 산복은 깊은 유년곡이 발달하여 지형이 험하므로 섬을 일주하는 데는 배가 교통 기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울릉도는 동해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관계로 여름에는 흐린 날이 많고 겨울에는 눈 내리는 날이 많다. 강수량이 1,600mm에 가까워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의 하나이며, 기온이 높으므로 향나무·호박나무·박달나무 등의 난대성 수목이 무성하다. 울릉도는 경사가 심하고 흐린 날이 많아 농업이 잘되지 않으므로 어업이 중요한 생업으로 되어 있고 도동은 이 섬의 중심지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 출처: 최흥준, 1970, 『고등 표준지리 I』, 동아출판사, p..

| 그림 2-9 | 독도가 포함된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독도에 대한 기술은 독도에 대한 사진(동도를 중심으로 바다에서 촬영한 것으로 종래의 것과 구분됨)을 함께 제시하면서 항상 영토권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 섬은 위치나 역사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일본이 영토권을 주장하여, 양국의 분쟁 지역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등대를 건설하고 경비대를 파견하여 어민들을 보호하고 있다.”(p.241)라고 서술하여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등 표준지리 I』(이지호, 삼화출판사, 1972)는 p.79의 수산업의 근대화 부분에서 한·일 간의 어업 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선이 철폐된 상황을 언급하며 수산업의 근대화를 강조하였으며, 한일 어업 규제도를 제시하였다. 이 지도를 보면, 평화선을 포함하여 그려졌음을 알 수 있고, 한

일어업에 의한 불이익을 인지하면서도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해어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영남지방의 생활”에서 동해어장과 울릉도라는 소주제로 울릉도와 독도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매우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고등학교 지리에서 다루던 내용보다 매우 축소된 것으로 동해 및 독도에 대한 언급을 규제하였던 1970년대의 사회상황을 반영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우 짧게 기술하고 있다.

“동해상의 울릉도는 제주도와 달리 물이 풍부하나, 경지가 매우 좁아 경사지에 화전이 개간되었으며, 식량의 자급은 반년분에도 미달한다. 이리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며,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경주·영일 등 동해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한편 독도는 동·서 두 섬으로 된 암산이고, 음료수가 없으나, 어업상·국방상 중요하다”(p.221~222)

표 2-3 | 2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울릉도, 동해

구분	교과서명	위치와 영역	해안	지방지	화산지형	지질	임업	수산업	기후	지도
2차 교육과정기	중학사회 I (법문사, 1966)	-	-	울릉도의 위치, 지질, 기후, 인구, 수산물 독도 영유권	-	-	-	-	-	울릉도 표시
	고등 표준지리 I (동아출판사, 1970)	-	동해안 해류	울릉도의 가옥 구조, 지형, 기후, 식생, 교통, 농업, 독도의 지형, 영유권	-	-	-	조경수역, 동해안의 어업	울릉도 기후	독도 표시
	고등 표준지리 I (삼화출판사, 1972)	-	-	울릉도의 지형, 인구, 산업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	-	-	한일어업 규제도	울릉도 강우	독도 표시



독도

* 출처: 최홍준, 1970, 『고등 표준지리 I』, 동아출판사, p.241.

| 그림 2-10 | 2차 교육과정기 독도 사진(최홍준, 1970)

2) 3차 교육과정기(1973~1981)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는 중학교의 경우 『중학 사회 1』로 국정화되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토지리』와 『인문지리』의 두 과목으로 분리되었으며 국정에 준하여 문교부가 선정한 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리부분과 국토지리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먼저 『중학 사회1』(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1979)를 살펴보면 남부지방을 설명하면서 울릉도의 위치, 지형, 교통, 농업, 산업에 대해 서술하고 울릉도와 독도 모두 매우 소략하게 다루었다.



그림 1-44 한일 어업 규제도

* 출처 : 이지호, 1972, 『고등 표준지리 I』, 삼화출판사, p.79.

| 그림 2-11 | 1970년대 교과서의 한일어업규제도

“울릉도는 포항에서 268km, 부산에서 320km 떨어진 화산 섬인데, 해안
이 절벽으로 둘러 있으므로 좋은 항만이 없다. 이 섬의 중심지인 도동도 큰
배가 드나들 수 없다. 비탈밭에서는 잡곡을 재배하고, 근해에서 오징어·고
등어·전복 등을 많이 잡는다.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을 이루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전복·미역 등을
따낸다.”(p. 55)

여기에서처럼 우리나라의 동단이 독도임을 언급하였으나,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를 100km라고 잘못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에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동쪽 끝인 것(p.83)은 언급하고 있으나,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에서는 울릉도만 표시되어 있을 뿐,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도 없다.

이는 국정교과서 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들에 비해 중학교에서의 독도와 동해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축소되었으며, 독도를 영토로서 그리고 동해를 영해로 인식시키는 교육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등 국토지리』(문교부, 1979)에서는 위치와 영역 단원 중 p.2에서 우리나라의 4극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극동인 독도의 경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지질과 지형 단원에서 우리나라의 화산지형(p.12~13)을 언급하면서 “울릉도는 주로 유동성이 작은 조면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종상 화산으로서, 형성 시기는 제 3기 말로 추정되고, 울릉도의 중앙 북부에는 상하 두 단의 칼데라 분지가 있는데, 아래의 것은 지면이 평탄하여 주민의 생활 무대로 이용된다. 그리고 상단 분지 내에는 알봉(611m) 이라고 불리는 중앙 화구구가 있는데, 최고봉인 성인봉(984m)은 외륜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울릉도는 이중 화산의 형태를 보여준다.”고 서술하였으나, 독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형적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연결체임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제시된 지도에는 울릉도만 표시되어 있을 뿐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의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사진이나 지도 등의 관련 자료들은 국정임에도 불구하고 2차 교육과정기의 검인정 교과서들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부라는 정부적 차원에서 독도 및 동해 관련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였거나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74년 2월에 독도 의용수비대장이었던 홍순철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과 협박을 당하였고, 1977년 미국지명위원회가 독도를 리앙쿠르 락으로 변경하고 주권미지정 지역으로 설정하려는 만행을 기획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시기는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는 시기와 일치하여 독도 및 동해 교육은 암흑기와 같았다고 할 수 있겠다.

| 표 2-4 | 3차 교육과정기에 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울릉도, 동해

구분	교과서명	위치와 영역	해안	지방지	화산지형	지질	임업	수산업	기후	지도
3차 교육과정기	중학사회 I (한국중등 교과서 주식 회사, 1979)	-	-	울릉도의 지형, 수산업 국토의 동단 으로서 독도	-	-	-	-	-	울릉도 표시
	고등 국토지리 (문교부, 1979)	국토의 동단으로 서 독도	-	-	울릉도 의 형성시 기, 지질, 지형	-	-	-	다설지 울릉도	울릉도 표시

3) 소결

2차 교육과정기(1962~1973)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기시대였다. 빈약한 자본과 자원으로 산업화가 부족하였던 탓에 일본의 원조자본 및 식민지배 배상금의 도입으로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이시기에 일본은 전후의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부흥하고 있었고, 한국의 군사정부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한 산업화 자본의 마련을 위하여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는 양상이었다. 이 시기 지리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들을 보면, 일본의 침탈을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이를 지키고 있다는 정도로 최소한의 독도 및 동해교육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주장되어온 한국의 해양주권은 한일어업협정내용으로 대체되면서 동해와 독도의 중요성을 서로 연결 짓지 못하였고 독도 인근 해역의 12해리영역을 공동자원조사수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표기하는 등 일본의 치밀하고 잘 포장된 해양 도발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본의 배상금으로 어업의 현대화를 하였다고 강변하는 등

현재까지도 그 비밀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독도 및 동해인식이 부족하였다.

3차 교육과정기는 군사정부가 더욱 강력한 통제를 하면서 교과서 국정화로 인하여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기술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육과정 문서에는 애국, 애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집필과정에서 묵시적 강요에 의해 영토 등 직접적인 표현들이 억제되었다. 실제 이시기의 국정교과서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리 교과서들을 보면 독도관련 내용이 거의 없다. 중학교 지리내용 뿐만 아니라 국정으로 출판된 국토지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는 국내·외적으로도 독도와 관련된 상황은 좋지 않았다는 점과도 직접 연결된다. 즉 독도수호관련 인물이 겁박을 당하고 미국에서의 독도지명표기가 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아, 1960년대 등장한 군사정부는 공업화, 산업화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일본이나 동서냉전을 주도하고 경제적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지리 교과서에 독도를 명시하거나 독도의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의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교육은 완전히 후퇴하였던 것이다.

3. 1980년대 초기~1990년대 후기(산업화후기)

1)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4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구조는 3차 교육과정기와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중학교에서는 지리내용이 중학 사회1에 포함되어 국

정교과서의 형태로 출판되었으며, 고등학교는 지리 I, II 두권의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로 다양한 출판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 3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국정과 다름없었으며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출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중학 사회1』(문교부·한국교육개발원, 1985)을 보면, 남부 지방의 생활 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라는 소주제로 독도와 울릉도가 다루어지지만 과거의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 매우 소략적으로 다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차 교육과정기의 일부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나타나던 소략화의 경향이 3차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4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매우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정 내지 국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발행되었던 시기나 해당 학교급의 경우에는,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 내용이 정부의 입김이나 개발을 맡은 특정집단에 의해 조정되어 축소되거나 오히려 확일화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교과서의 내용에 지나치게 정부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교과서에서 기술된 독도 및 울릉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울릉도는 동해 어장의 주요 어업 기지로서, 육지에 비하여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작은 편이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 도동은 울릉도의 생활 중심지로서, 육지와 연결되는 항구이며, 저동은 어업 전진 기지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어업뿐만 아니라 군사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p.67~68).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독도가 국토의 동단이며 군사상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언급하면서 독도의 사진만은 제시되었으며, 기존의 독도 사진보다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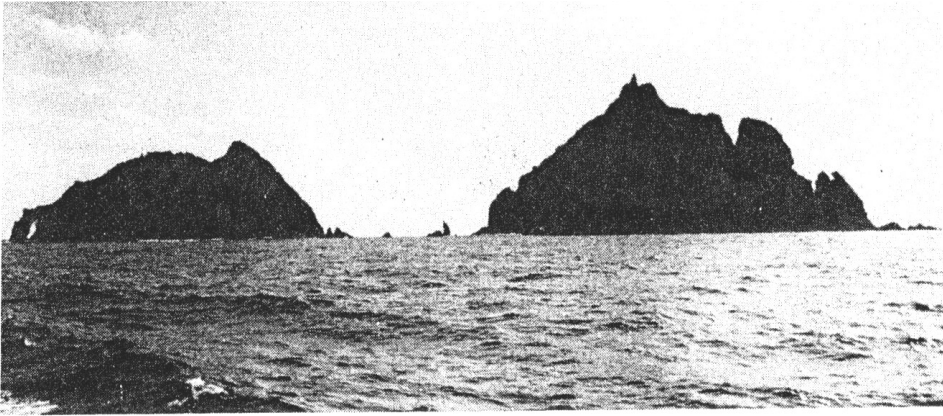
거리에서 동도와 서도가 나오도록 바다에서 촬영한 사진을 <그림 2-1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계통지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지리 I”이나 지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지리 II” 교과서 모두에서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 두 권의 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 의해 다양하게 출판되었다.

먼저 “지리 I” 교과서의 경우, 특히 4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지리 I” 교육과정을 보면 “위치와 영역”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교과서의 경우 영역에서 영토와 영해에 대해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영토 및 영해의 범위 및 영토관련 쟁점들을 다루었다.

『고등학교 지리 I』(김상호 외 3인, 금성출판사, 1984) 교과서를 보면, 영역과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역과 영해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영해도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영해를 육지의 경우 대한해협을 제외하고는 12해리로 설명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별도로 표시하여 주변 12해리까지를 우리의 영해로 표시하고 있다<그림 2-13 참조>.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제시된 주요어장도를 보면, 과거 1960년대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만을 제시하고 이승만 평화선 등 영해에 있어서 우리의 주권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과 국토 및 영해문제를 비판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4 참조>.



독 도

| 그림 2-12 | 4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사회(지리) 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사진(p.67)

즉 영해의 문제와 우리나라의 수산업 등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국방 및 군사적인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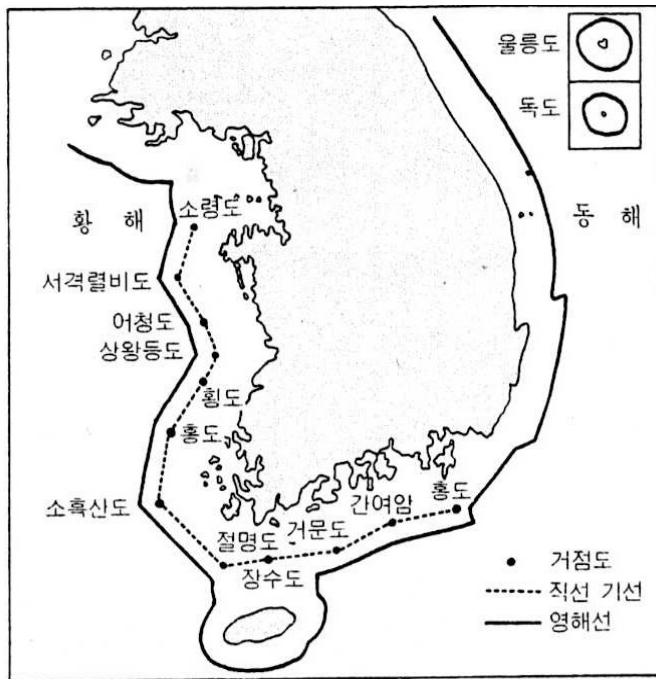
그리고 위의 교과서의 경우보다 매우 소극적으로 영역 즉 영토와 영해 부분을 다루는 교과서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지리 I』(오홍석 외 2인, 장왕교재연구원, 1985)을 보면, 동일한 주제의 “위치와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4극으로 독도를 소개하고 있으나(p.23), 영역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기술이 그 범위조차도 매우 소략화되어 있으며, 영해는 우리의 영토에서 12해리라고만 기술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지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예는 『고등학교 지리 I』(박동원 외 4인, 동아, 1983)과 『고등학교 지리I』(조동규 외 2인, 고려서적, 198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영역을 영토, 영해, 영공으로 나누어 개념적인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역도 기술하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는 12해리 선으로 한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었다.

그런데 “지리Ⅱ” 교과서들을 보면, 지지적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지만 ①도서지역을 다루면서 영해의 측면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사진까지 제시하는 경우, ②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기술하면서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 ③매우 간단하게 독도를 기술하는 경우가 있다.

①의 경우는 드물지만 『고등학교 지리Ⅱ』(오홍석 외 2인, 장왕교재연구원, 1985)가 해당된다. 이 교과서는 영토 및 영해의 측면에서 도서지역이 갖는 지리적 중요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독도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인 까닭에, 영토가 반도부만이 아니라 이에 부속된 도서부로 구성되고 있다. 더욱이, 가장 연변에 위치한 도서들은 영해를 획정할 수 있는 기선이 되므로 영토의 전초지적 가치가 있다. 현재, 영해를 획정하는 기선은 서해상의 소령도·서격렬비도·어청도·상왕등도·횡도·홍도(紅島)·소흑산도를, 남해상의 절명도·장수도·거문도·홍도(鴻島)를 각각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이 고립되어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의 선을 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독도는 영해선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곳이 된다.”(p.62)



한국의 영해

* 출처: 김상호 외, 1984, 지리I, 금성출판사, p.39.

|그림 2-13|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 제시된 한국의 영해



우리 나라의 주요 어장

* 출처: 김상호 외, 1984, 지리Ⅰ, 금성출판사, p.133.

| 그림 2-14 |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에 제시된 우리나라 주요 어장도

또한 이 교과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주변 12해리가 우리의 영해로 표시하는 지도를 싣고 있다<그림 2-15 참조>. 여전히 우리의 영해의 범위를 국제적 관행의 범위를 넘어서 보는 시각이 부족하고 동해가 가진 중요성을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교과서는 별도의 페이지로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 독도의 사진 등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싣고 있어 독도에 대한 깊은 관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②의 경우에 해당되는 교과서는 『고등학교 지리Ⅱ』(김상호 외 3인, 금

성출판사, 1984) 이다. 이 교과서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소주제하에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독도는 울릉도에서 100여 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산섬으로서, 어업상이나 군사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p. 89)고 매우 간략히 언급하면서 섬에서 바다쪽으로 찍은 독도사진을 게재하고 있다<그림 2-16 참조>.

③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과서들의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지리Ⅱ』(이찬 외 4인, 교학사, 1985)와 『고등학교 지리Ⅱ』(조동규 외 2인, 고려서적, 1983)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울릉도”라는 주제 속에서 독도를 매우 간단하게 다루는데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화산도로, 음료수가 없어 주민은 살 수 없으나, 어업, 국방의 기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섬이다”(p.73)라고 기술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는 “도서지역”을 다루면서 “울릉도”와 관련된 내용을 3쪽에 걸쳐 다루면서 독도를 언급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화산섬으로 된 무인도이다. 동서 두 개의 큰 섬과 그 밖에 몇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지만, 어업상, 군사상 중요한 곳이다. 일본은 이 섬이 자기들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다.”(pp.71~72)라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독도가 갖는 어업상, 군사상의 중요성을 넘어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영토문제에 대해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후자의 경우처럼 독도의 영토관련 인식에서 일본의 침탈을 경계하는 것은, 1980년대 초인 1981년 초기 군사정권이 경제협력의 명분으로 일본차관을 들여오면서 독도관련 논의들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이 발생하면서 독도에 대한 국민적 자각이 높아지던 시기였던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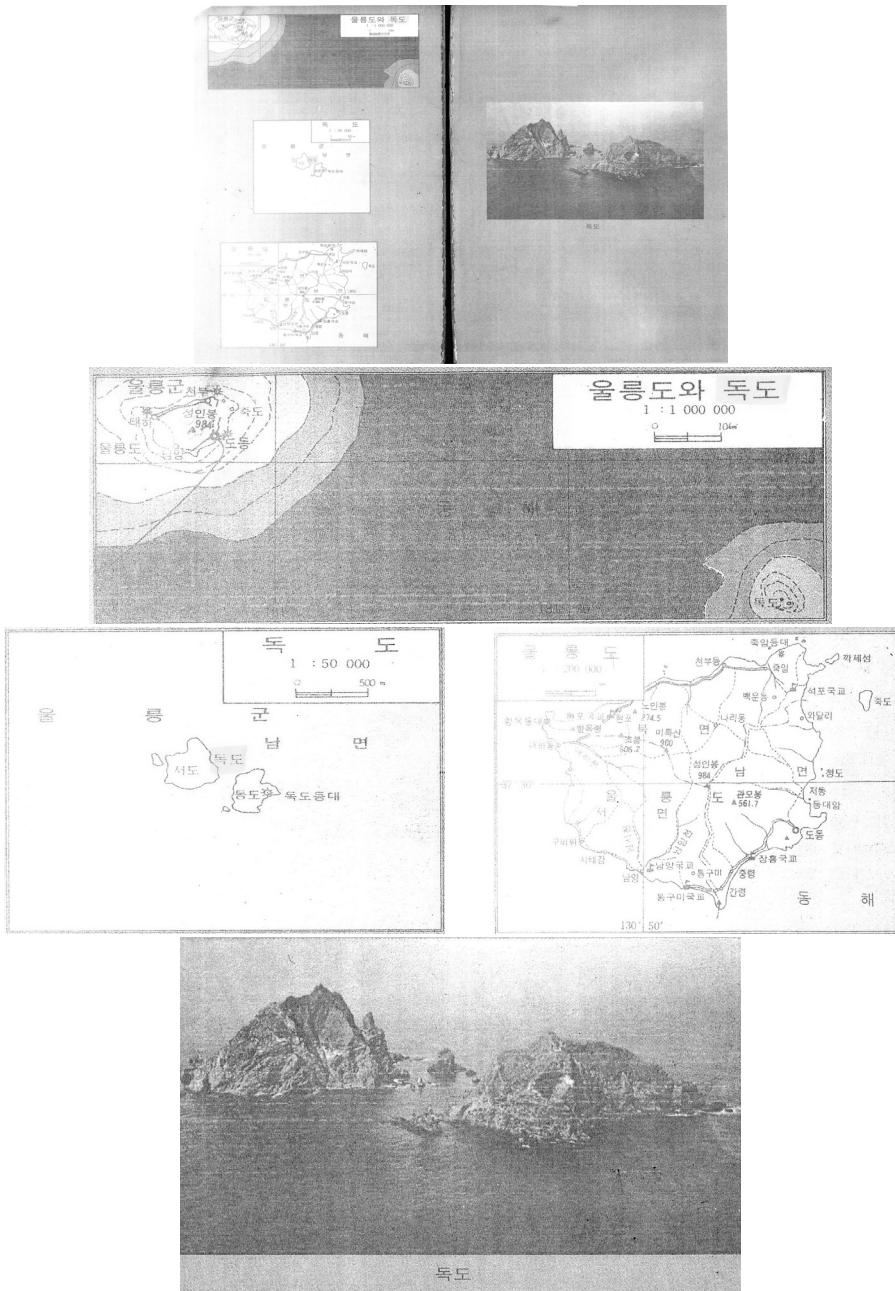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4차 교육과정기인 1980년대 초에 “지리Ⅰ”,

“지리Ⅱ” 교과서에서의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을 소략화하는 경향은 당시 교과서 집필상의 약간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즉 “지리Ⅰ”과 “지리Ⅱ” 교과서를 동일 출판사의 동일인들이 집필하면서 비슷한 내용부분을 다루면서 독도관련 내용 또한 “지리Ⅰ”에서 다룰 부분과 “지리Ⅱ”에서 다룰 부분을 중복하지 않도록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는 아직까지도 독도관련 하나의 입장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우리의 땅인 독도해와 관련된 영토 및 영해 문제를 드러나게 다루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다룰 내용은 지식구성의 측면에서 맥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때, 독도와 동해 관련부분은 주로 지역위주의 지지로 내용이 구성된 “지리Ⅱ”에서 보다 “위치와 영역”이라는 명시적인 주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지리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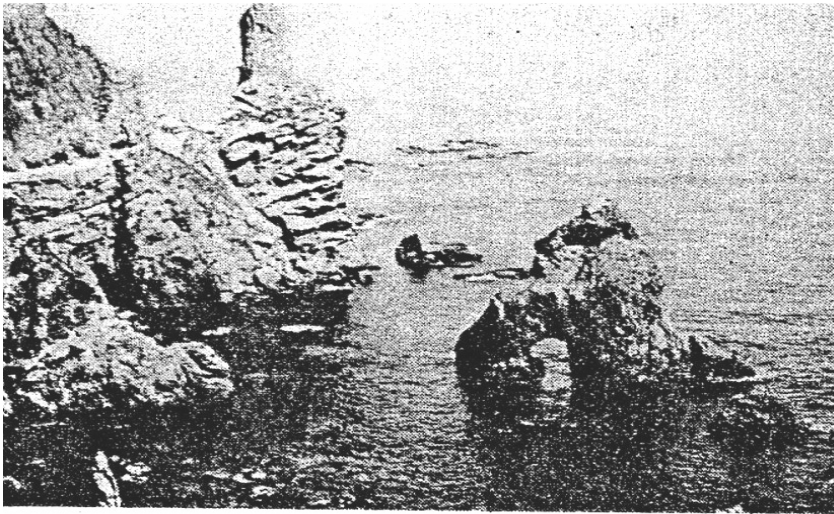


그림 Ⅱ-37. 기선의 거점과 영
해 범위

* 출처: 오홍석 외 2인 1985, 『고등학교 지리 Ⅱ』, 장왕교재연구원 p.62



[그림 2-15b] 『고등학교 지리II』(오홍석 외 2인)에서 제시된 독도관련 자료들



독 도

* 출처: 『고등학교 지리II』(김상호 외 3인, 금성출판사, 1984), p.89.

| 그림 2-16 | 4차 교육과정기 “지리II” 교과서에 실린 독도 사진

| 표 2-5 | 4차 교육과정기(1982~)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울릉도, 동해

구분	교과서명	위치와 영역	해안	지방지	화산지형	지질	임업	수산업	기후	지도
4차 교육 과정 기	중학사회 I (문교부, 1985)	-	-	울릉도의 지형, 기후, 수산업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	-	-	-	-	-
	고등지리 I (금성출판사, 1984)	한국의 영해	-	-	-	-	-	-	-	울릉도 , 독도 표시
	고등지리 II (장왕교재연구원, 1985)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	-	-	-	-	-	-	-

2)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5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는 4차 교육과정기의 것과 거의 동일하며,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지리Ⅰ”, “지리Ⅱ”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변경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4차 교육과정기처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고등학교의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검인정으로 다양한 책들이 출판되었다. 중학교에서의 지리 내용은 “중학교 사회Ⅰ”과 “중학교 사회Ⅲ” 교과서 모두에 나타나며 중1은 지지중심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중3은 계통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중학교의 ‘중학 사회Ⅰ’ 교과서(교육부/교육개발원, 1991)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구분과 남부지방에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이 다루어진다. 종래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지리내용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구분도에서 생략하였던 독도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지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그림 2-17 참조>. 이 교과서에서의 동해와 관련된 진술은 종래의 동해안의 지형적 특징을 기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해에 속한 울릉도 부근 해역을 언급하면서 “동해안”개념 보다 확대된 “동해”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p.50-52, 65)

그리고 중단원 ‘2. 남부 지방의 생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소주제하에 울릉도를 기술한 다음, 화산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징부터 ‘어업전진기지’ 및 ‘군사상 요지’ 라는 설명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한 관계적 위치를 강조하면서(p.67-68) 독도에 대한 소략적 기술을 하고 독도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사회 3』 교과서는 지리 및 일반사회 영역이 통합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리 영역은 자원 지리 및 인구 지리 쪽에 내용이 편중되어 있다. 그 때문에 독도 및 울릉도와 같은 지역 지리적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동해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만 설명되어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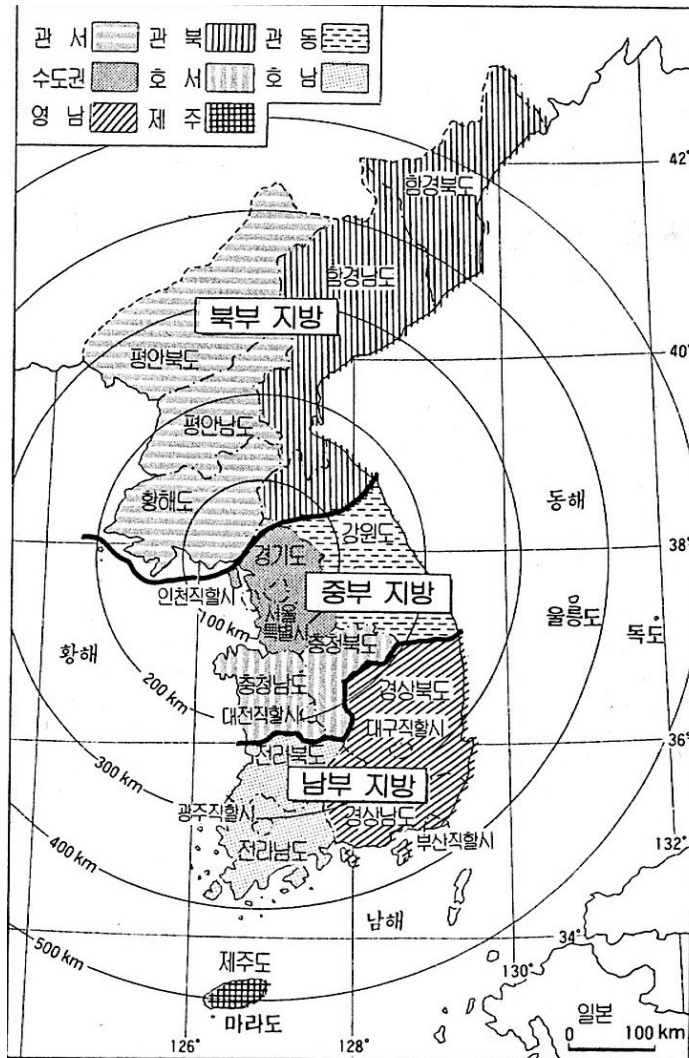
동해에 관한 내용도 중1 사회에서 언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동해의 단조로운 해안선, 조정 수역, 한류성 어족 특히 명태가 풍부하다는 점(p.130-131) 등이 설명되어있다. 특이한 점은 교과서 속의 지도에서 나타나는데, 독도 및 울릉도가 한 단원으로 까지 할애되어 구성된 중 1사회 교과서 속 지도에는 울릉도 및 독도가 모두 표기되어 있었는데 반해 중 3 사회 속 한반도 지도에는 울릉도 및 독도가 하나도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5차 교육과정기는 1986년의 한일회담에서 21세기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한일관계가 매우 원만하였던 시기로 교과서에서도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이 자유롭게 다루어지고 이전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관련내용들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인 한국지리에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독도, 울릉도, 동해가 다루어지는 형식은 4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과서와 거의 비슷하나 동해와 관련하여 지질적 형성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5차 교육과정 한국지리에서는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기후 뿐 만 아니라 화산 지형이라는 특색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독도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교과서의 앞부분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위치에서는 우리나라 4극을 이루는 것을 지도로서 제시하는 것이 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는 달라진 양상이다. 영역에서는 4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12해리 영해선만을 제시하는 경우와 과거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로 나뉘어서 나타난다.

동해 또한 영역에 대한 간단한 기술에서 언급되며 지형, 산업 등의 관련 단원에서 언급되나 동해의 영역적 그리고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다만 동해에 대한 지형적, 과학적인 측면에서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지리』(주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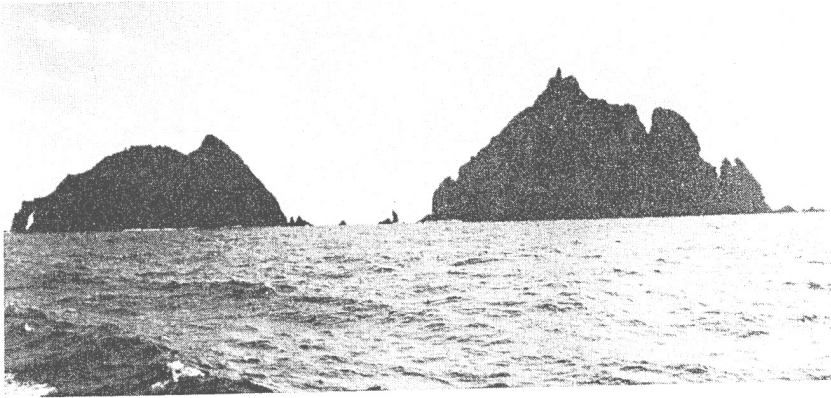
외 3인, 1990, 능력개발) 교과서를 보면 동해의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역 구분

* 출처: 중학 사회 I, 교육부/교육개발원, 1991, p. 42.

| 그림 2-17 | 5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독도가 포함된 지역구분도



독 도

* 출처: 중학 사회 I, 교육부/교육개발원, 1991, p. 47.

| 그림 2-18 | 5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사진

“동해는 평균 수심이 1700m나 되는 깊은 바다로 해저 분지가 매우 넓으며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해저 분지는 중생대 말에서 제 3기에 걸쳐 현재의 일본이 한반도에서 점점 갈라져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반의 침하와 해저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 형성되었다. 동해에 대륙붕이 좁게 나타나고 울릉도를 제외하고 섬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p.92)

또한 지지단원에서 독도는 남부지방 단원에서 울릉도와 함께 다루어지며, 4차 교육과정기 처럼 거의 1~2개의 문장만으로 매우 간략히 어업상, 군사상 중요하다는 것만을 언급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인 경우는 독도 사진을 함께 실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이 시기의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이 ①위치 부분, ②영역부분, ③지지부분 및 관련 사진부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①위치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4극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던 우리나라 영토의 끝인 독

도가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가시적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역 전도에 독도가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표현되는 지도로서 제시된 예들이 등장한다. 아래의 <그림 2-19a>는 우리나라의 4극을 지도로 표현하고 바로 그 옆에 독도사진을 싣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도에서 우리 영토의 범위를 독도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수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림 2-19b> 또한 우리나라 영토를 수리적 위치로 보여주면서 독도가 포함된 전도로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영토의 4극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② 영역부분을 보면,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 영역을 영토 뿐만 아니라 영해를 함께 다루어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영해 및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독도를 포함하여 영해를 표시하는 것은 모든 교과서에서 보편화되었으나, 영해 및 영역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과거 교육과정기의 관행처럼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와 12해리 영해선만을 제시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를 보면, 과거의 한일어업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지만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이 우리의 영해에 속해 있는 것이 애매하게 표시되면서 공동규제수역 외부에 있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경우<그림 2-20a>,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이 우리의 영해로써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지만 여전히 공동규제수역의 외부에 있음을 드러내는 경우<그림 2-20b>, 아예 공동조사수역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경우<그림 2-20c>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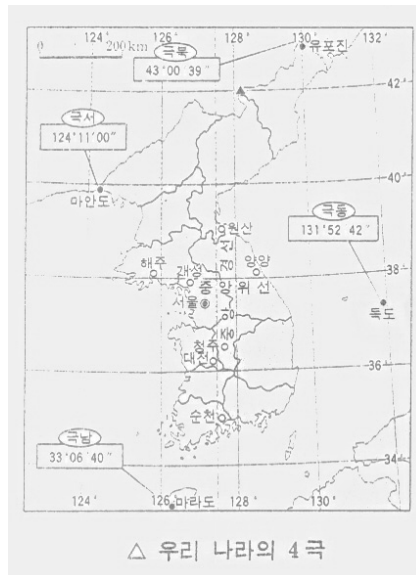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 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 근해가 우리의 영해이며, 이를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인 동해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넓은 범위의 영유권 주장을 펼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영해와 함께 비교를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영해관련 표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12해리 영해선만을 제시하는 경우를 보면<그림 2-21a, 21-b, 21-c>, 울릉도와 독도의 인근 12해리 해역을 영토로서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 전도보다는 남한만의 지도를 사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영해를 남한에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전체의 영토와 영해를 이해하는 데 부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그림 2-21c>처럼 음영처리를 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 인근의 해역마저도 애매하게 만들어 표기 면에서도 부적절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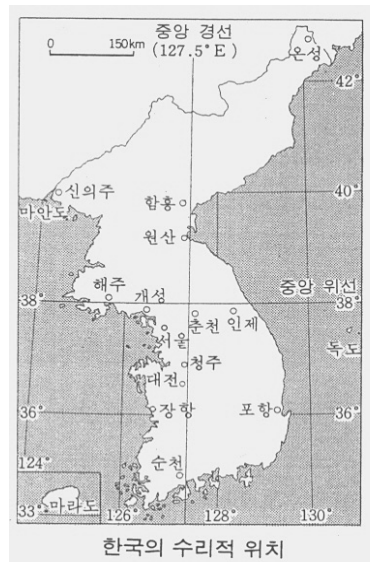
③ 지지부분 및 관련 사진부분을 보면, 대부분 남부지방 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울릉도”라는 소주제로 간단하게 다루면서 독도 사진을 함께 실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리』(서찬기 외 4인, 1989, 금성사) 교과서를 보면, 울릉도 부분을 다루면서 “울릉도 남동쪽으로 90km 떨어진 독도 역시 화산도인데, 두 개의 큰 섬과 30여개의 암도로 구성된다. 독도는 어업 및 국방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다”(p. 272)고 기술되어 있으며, <그림 2-22a>와 같은 사진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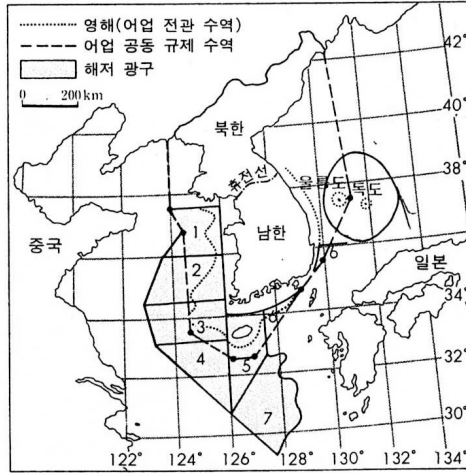
* 출처: 오태선 외 1인, 1990, 『한국지리』, 지학사, p22

| 그림 2-19a | 우리나라 4극과 독도를 표시한 교과서



* 출처: 형기주 외 3인, 1990, 『한국지리』, 민문고,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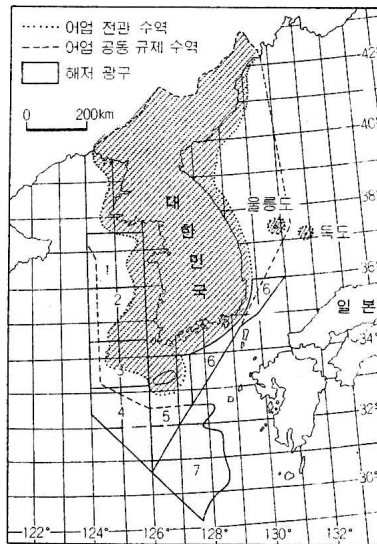
| 그림 2-19b | 한국의 수리적 위치를 표시한 교과서



우리 나라의 영해와 대륙붕 광구

* 출처: 서찬기 외 4인, 1989, 『한국지리』, 금성사,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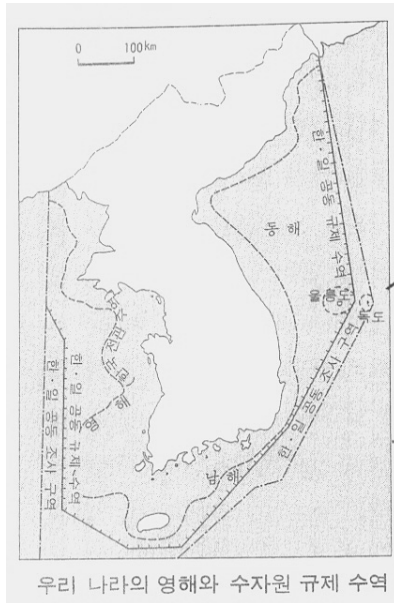
| 그림 2-20a |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이 애매하게 표시된 경우(5차)



우리 나라의 영토와 해역

* 출처: 주경식 외 3인, 1990, 『한국지리』, 능력개발, p.33.

| 그림 2-20b |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출처: 황재기 외 3인, 1990, 『한국지리』, 교학사, p.34.

| 그림 2-20c | 독도가 공동조사구역 내에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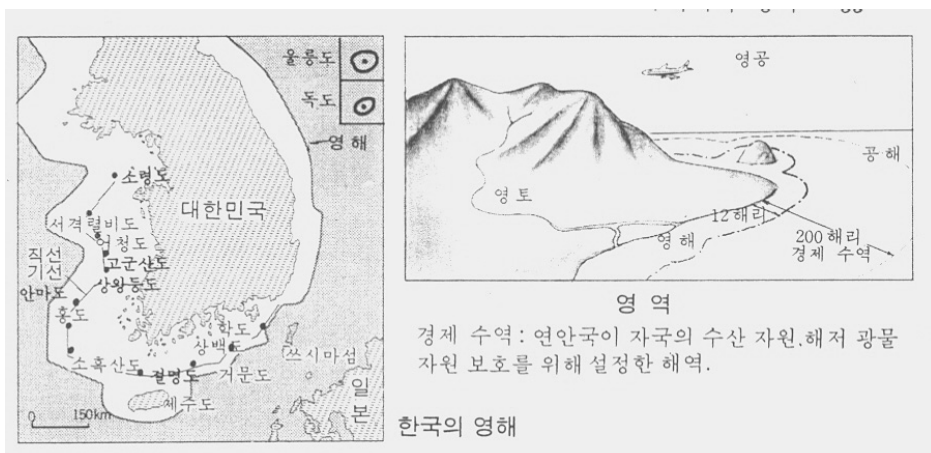
* 출처: 오탈선 외 1인, 1990, 『한국지리』, 지학사, p. 24.

| 그림 2-21a | 우리나라 영해를 남한에 한정한 경우 |



* 출처: 권혁재 외 3인, 1990, 『한국지리』, 교학연구사,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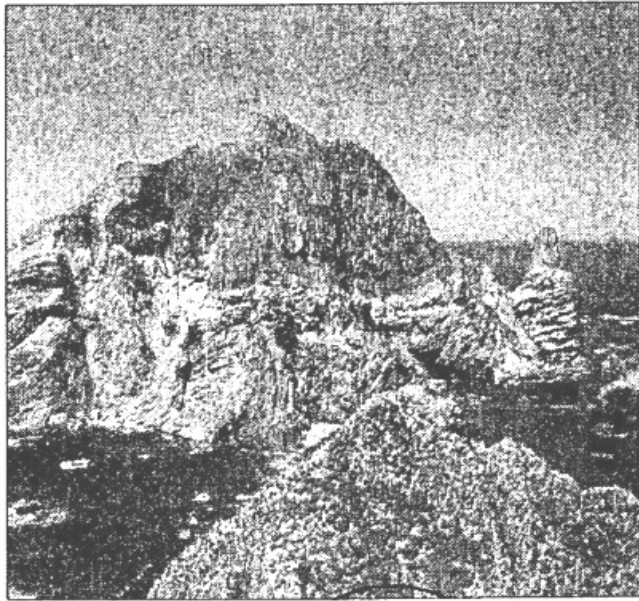
| 그림 2-21b | 우리나라 영해를 남한에 한정한 경우 II



* 출처: 형기주 외 3인, 1990, 『한국지리』, 민문고, p.33.

| 그림 2-21c | 우리나라 영해에 음영처리를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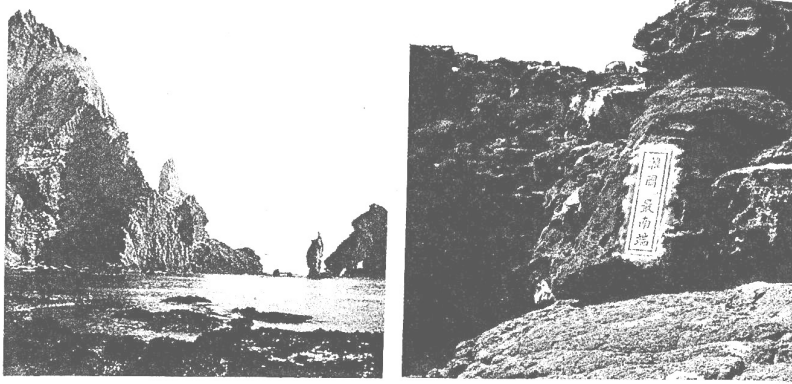
그리고 『한국지리』(주경식 외 3인, 1990, 능력개발) 교과서를 보면, “위 치와 영역” 주제를 다루면서 <그림 2-22b>와 같은 독도사진을 싣고 있다. 『한국지리』(황재기 외 3인, 1990,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는 남동지역에서 특 별한 소주제 없이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독도 역시 화산섬으로 음료수가 없어 주민은 살기 어려우나 어업, 국방의 기지가 되 는 매우 중요한 섬이다” (p.254)라고 매우 간략히 기술하고 사진은 싣고 있 지 않다. 그 밖의 교과서에서도 독도 사진을 싣기도 하였는데, 『한국지리』 (권혁재 외 3인, 1990, 교학연구사)에서는 <그림 2-22c>처럼 독도 내부의 빼 어난 자연경관을 담고 있는 예술적 사진을 머리말 다음에 싣고 있다.



독 도

* 출처: 서찬기 외 4인, 1989, 『한국지리』, 금성사, p.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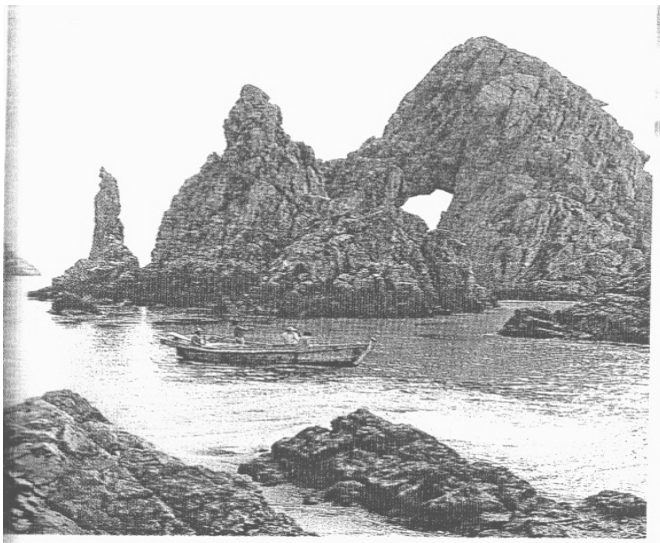
| 그림 2-22a | 5차 교육과정기(1987 ~ 1992) 지리교과서의 독도사진들 I



우리 나라의 최동단 독도와 최남단 마라도

* 출처: 주경식 외 3인, 1990, 『한국지리』, 능력개발, p.34.

| 그림 2-22b | 5차 교육과정기(1987 ~ 1992) 지리교과서의 독도사진들 II



* 출처: 권혁재 외 3인, 1990, 『한국지리』, 교학연구사.

| 그림 2-22c | 5차 교육과정기(1987 ~ 1992) 지리교과서의 독도사진들 III

| 표 2-6 |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지리교과서의 독도, 울릉도, 동해

구 분	교 과 서 명	위 치 와 영역	해 안	지 방 지	화 산 지 형	지 질	임 업	수 산 업	기 후	지 도
5 차 교 육 과 정 기	중학 사회 1 (한국교육 개발원, 1989)	-	동해안의 단조로운 해안선	남부지방의 생활 중 '울릉도와 독도'단원	-	-	-	동해의 명태야장 울릉도 의 오징어		동해, 울릉도, 독도 표기
	중학 사회3 (한국교육 개발원, 1991)	-	동해의 자연경관	-	-	-	-	-	울릉도의 적설량	동해만 표기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1989)	영해 및 어업 공동 규제 구역	동해안의 자연 경관	남동 지역의 울릉도와 독도 단원	울릉도의 이중화산	-	-	-	울릉도의 강수량 및 강설량, 우리 나라 기후구 중 울릉도형 , 우데기	울릉도, 독도 표기
	한국지리 (능력개발, 1991)	영해 및 어업 공동 규제 구역	동해안의 단구 및 사주 등의 지형경관	울릉도의 어장, 남동지역 의 울릉도와 독도 단원	화산 지형 중 울릉도, 울릉도의 뱅크	제 3기에 형성된 울릉도 와 독도, 동해의 해저분지	-	-	울릉도의 강설량, 울릉도형	울릉도, 독도 표기

3)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6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는 중학교의 경우 5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보다 강력한 통합사회과를 지향함으로써 지리, 역사, 일사의 내용이 더욱 통합되었으며 여전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개발로 만들어졌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5차와 동일하게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의 두 개의 교과서로 만들어졌으며 다수의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는데 5차와 거의 동일한 출판사에 의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출판되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지리 교과 내용들은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사회 과목에 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중학교 사회에서는 독도 및 울릉도에 관한 지리적인 기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교과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지도의 경우 울릉도는 대부분의 지도에서 비교적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만 독도가 표기된 것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사회과 통합 교과서로 인하여 국토의 위치와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나 지지 단원에서 독도 및 동해가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 시기는 독도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었다.

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은 5차 교육과정기처럼 한국지리관련 교과서에서 다루어졌다. 즉 6차 교육과정 학교급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지리가 ‘공통사회(하)’라는 교과명 아래 한국지리 내용을 담고 있다.

6차 한국지리에서는 앞서 살펴 본 5차 교육과정의 한국지리에서 다른 독도 및 울릉도 그리고 동해의 내용 보다 풍성해지고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5차 교육과정기의 내용과 지도 및 사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많았다. 5차 교육과정기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지형, 산업, 지방지 부분에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공통사회(하) 한국지리』(형기주 외 3인,

1996, 보진재)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극동으로서 ‘경상북도 독도 동단’을 가리키고 있으며 극동으로서의 독도의 수리적 위치까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p.33). 이러한 객관적인 서술 이외에도 심화 학습으로 “독도문제”를 다루어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독도 영토 문제를 역사 및 지리적으로 심도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독도 영토 문제를 공식적인 문제로 보고 일본 측의 억측을 다양한 학술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서 독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1996년부터 다시 시작된 독도사태 즉 2월에 있었던 일본 문부성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는 사건이나 10월의 일본총리 하시모토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해 1997년 7차 교육과정에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지리교과서에서 보다 심도 있고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의 것이었고, 다른 교과서들이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시사점이 크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이 교과서는 영해 부분의 서술도 마찬가지로 ‘동해와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는 해안선인 통상 기선에서, 황해와 남해에서는 직선 기선에서 12해리까지를, 대한해협에서는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였다.’(p.37)라고 언급하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영해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전도보다는 남한만을 다루는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등 몇 가지 약점이 보인다. 독도에 대한 설명은 지형부분에서도 나타나며, ‘울릉도 부근의 독도 역시 화산 활동의 결과 생긴 섬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p.67)

그리고 10여종의 한국지리 교과서들이 출판되었지만, 5차와 거의 동일한 출판사에 의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출판되었으므로 심지어 저자가 바뀌어도 해당 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에 사용된 위치와 영역에 나오는 내용들과 지도들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즉 동아, 금성, 지학, 교학과 같은

출판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표 2-7 | 6차 교육과정기 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 울릉도, 동해

구 분	교 과 서 명	위치와 영역	해 안	지방지	화 산 지 형	지질	임업	수산업	기후	지도
6 차 교 육 과 정 기	중학 사회3 (한국교육개 발원, 1997)	-	-	-	-	-	-	-	-	동해와 울릉도 표기한 지도 (독도 없음)
	고등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보진재, 1996)	극동으로 독도의 수리적 위치	동해안의 자연경관 (사주, 석호 등)	-	화산체 울릉도	-	울릉도 식생 분포	울릉도의 오징어 잡이, 동해어장	울릉도 겨울 강설량	-

심화 학습	독 도 문 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는 동·서 2개의 바위섬 독도(獨島)는 동경 131° 52' 42", 북위 37° 14' 18"에 위치한 화산섬이다. 독도라는 명칭이 처음 문헌에 나타난 것은 1906년으로, 울릉군에 보관된 울릉 군수 보고서에 '본군에 속한 독도'라고 쓰여 있고, 같은 해 '매천야록'에도 '독도'라고 쓰여 있다. 러·일 전쟁으로 기세가 당당해진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에 속하는 섬이라고 하면서 이를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고시(告示)하고, 우리의 울릉 군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1906년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고시는 사실상 우리의 독도를 강제 찬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에 제기된 것은 1952년 1월 우리 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이 외무성 각서로 이를 항의하면서부터이다.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를 통해서 국제법상의 선점권(先占權)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적 기록만이 아니라 일본인 자신들이 기록한 역사에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한 바 있기 때문에 누가 무어라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조 초기부터 이 섬을 우산(于山)·삼봉(三峯) 등이라 부르고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된 섬으로 기록하고 있다. 숙종실록에 1693년 안용복(安龍福)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고, 1696년에는 16명의 어부를 인솔하여 우산도(于山島)에 들어가 무단 침범한 일본 어부를 내어쫓다가 표류하여 일본의 오키 섬(隱岐島)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 우산도는 독도를 지칭하며, 이 기록은 일본의 사료인 통항 일람(通航一覽)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20세기 초 일본인 다부치(田淵友彦)가 편찬한 '한국 지리지'와 1908년에 펴낸 '한국 수산지'에도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 영토로 기재되어 있다. 독도는 부근의 수산 자원 보호와 동해를 지키는 거점으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 무인도였던 이 섬에 지금은 우리의 수비대가 파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부 한 가족이 살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관심은 크다.

36 II. 자연 환경과 생활

* 출처: 형기주 외 3인, 『공통사회(하) 한국지리』, 1996, 보진재, p.36

| 그림 2-23 | 6차 교육과정기에 심화학습의 형태로 제시된 독도관련 내용

4) 소결

4차 교육과정기(1981~1987)는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군사정부의 몰락에 이은 신군사정부가 통치하던 시기로 여전히 일본의 경제적 원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로 인해 신군사정부 역시 한 일간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은 철저히 규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름대로의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기도 하여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이 다루어지기에는 하였으나 여전히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은 중, 고 모두에서 소략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지리I”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것에 비해 고등학교 “지리II”는 국토지리를 다루면서 매우 다양하게 독도관련 내용들을 다루었다.

이처럼 이 시기에 국토지리에서 독도관련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진 것은 신군사정권에 의해 교육내용의 통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연속적인 독도망언 등으로 국민적 자각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5차 교육과정기(1987~1992)는 민정이양 등의 사회적 혼란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내용을 거의 답습하는 형태를 띠면서 독도관련 내용은 매우 부실하게 다루어졌다. 동해의 형성 성인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 첨가된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독도 인근의 영해 표기처리가 매우 애매하게 되거나 “음료수가 없어 주민은 살기 어렵다”는 표현 등 부정적으로 기술하거나 매우 소략한 기술만을 하거나 심지어 사진조차 담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화시대의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 내용기술은 일본과의 관계 등 국내외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였는데, 산업화초기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중요시하던 것에 비해 경제적, 국제적 상황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차 교육과정기는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 교육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도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고

5차 교육과정기는 두 번째의 암흑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6차 교육과정기(1992~1997)의 교과서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던 시기이어서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추구되면서도 한국적인 고유성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함에도, 후기산업사회의 혼란이 교육과정의 구성과 이에 따른 교과서 내용구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이 오히려 미국적인 통합교육과정으로 회귀하여 중학교의 경우 5차 교육과정기에 비해 보다 강력한 통합사회과를 지향함으로써 지리, 역사, 일사의 내용이 더욱 통합되었으며 여전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개발로 국정교과서 체제가 유지되는 매우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형성으로 인하여 중학교에서는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여 독도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이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드러내었다.

6차 고등학교 한국지리에서는 후기산업사회가 추구하는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으로 독도와 동해를 다룸으로써 독도 및 울릉도 그리고 동해의 내용 보다 풍성해지고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5차 교육과정기의 내용과 지도 및 사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심화 학습으로 “독도문제”를 다루어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독도 영토 문제를 역사 및 지리적으로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4. 2000년 이후(7차 교육과정 이후~)

7차 교육과정기(1997~2007)와 개정 7차 교육과정기(2007~)는 실질적으로는 7차 교육과정부터 수시 부분 개정 체제로 바뀌면서 구분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는 7차 교육과정기부터 실질적으로 수시로 부분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의 개정교육과정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 교과서의 내용자체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2011년에 선택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이 완전히 끝나고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1997년의 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를 다룬다.

7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의 지리내용은 6차와 동일하게 중학교 사회 교과서 1(1학년)과 3(3학년)에서 다루어졌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의 “고교 사회”와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의 세권의 심화 선택용 교과서에서 다루어졌다.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은 지리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우리나라 지지에서 남부지방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중학교 사회 1』 교과서는 10여 종으로 매우 다양하게 출판되었으며, 과거처럼 “남부지방의 생활” 단원에서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이 이전 교육과정기의 교과서들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독도는 한국지리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지방의 특징 중 남부지방의 해양적 위치와 북부지방의 대륙 관문의 위치는 우리나라의 영역과 외부와의 접경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위치특성을 이해하도록 다루어지지만, 최근에 와서 지속적으로 독도학습에 대한 양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학교 사회 1』(최현섭 외 14인, 고려출판사)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학 사회1(고려출판, 2001)의 경우 특이할 만 한 점은 독도에 관한 내용이 그 전 교육과정에 비해 양이나 질이 매우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경상 남도의 순수 어민이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많은 어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근해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하면서 가까운 바다에서는 경쟁적 남획으

로 인해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심화학습으로 “독도는 우리 땅과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이란 타이틀 하에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일 양국은 우선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불분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하여 1999년에 새로이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업 협정과 무관하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 I 교과서의 지리 내용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네 가지 유형으로 다루어진다. 첫째는 독도의 자연지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비롯하여 독도관련 쟁점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독도관련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으며(권영배, 2006, 156),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사진자료만 제시하는 경우이다. <표 2-8>을 보면, 성지문화사가 첫 번째 유형에 속하고, 고려출판사의 것과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것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며, 교학사의 것이 네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의 유형은 전체 8종중에서 위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4개종의 교과서가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본문에서 다루기보다 읽기, 사전, 지도 등의 형식으로 다루어주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지리, 역사, 일반사회의 각 영역별 계통학문을 중심으로 체계가 짜여있으며, 1학년은 주로 지리영역으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중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지리영역의 한국지리 내용의 경우, 우리나라를 중부, 남부, 북부 지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하위 지역으로 나누어가면서 지지중심으로 다루어지는데, 독도는 남

부지방의 영남지방편에서 울릉도와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종래에는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울릉도와 더불어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하여 영토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독도관련 쟁점들을 다수의 교과서들이 다루어나가고 있으며, 특히 역사(국사) 영역과 함께 영토 및 영해교육의 측면에서 독도를 다루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영토문제를 피상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쟁점중심으로 국경문제, 영해문제 등과 관련시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과의 관계로 독도관련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풍조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과정기의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가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독도가 화산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섬이고,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어업 및 군사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사진을 함께 제시하면서 언급하고 있어, 독도에 대한 자연지리적 관심과 경제적, 군사적인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국 교육개발원, 1991, 67).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다루어지는 독도관련 내용들을 보면, 중학교에서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영토교육과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며, 영역을 구성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학습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영토교육과 영해교육을 비롯한 영역교육에 대한 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경계선 및 국경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 중요해지는 21세기 해양시대에 있어서 바다의 경계와 경제활동의 경계 등은 차세대 한국인들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독도와 관련하여 함께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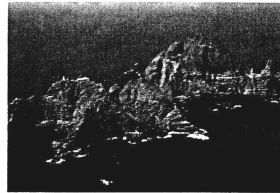
교과서별로 고등학교 지리영역의 영토교육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비교·분석해 보면 <표 2-8>과 같다. 고등학교에서 지리 관련 내용은 10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고등학교 공통 사회 I> 교과서와 선택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3학년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진다. <고등학교 사회 I>의 경우, 독도 관련 내용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는 국토교육이라는 틀에서 <한국지리> 내용과도 관련지어져서 다루어진다. 10학년의 공통사회 지리 관련 내용을 보면, 독도에 대한 내용은 주로 1단원의 1단원 “국토와 지리정보” 부분에서 다루어지는데, 영토교육 ->독도교육 -> 국토교육의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들 내용들은 고지도, 고문헌을 통해 조상들의 국토관과 자연관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되어 가르쳐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우리 땅과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 우리 나라의 동쪽 끝은 동해에 위치한 바위섬인 독도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 주변 바다에 해군 함정과 해양 경찰청의 경비 함정을 배치하여 우리 어민들의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지키고 있다.
-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불법으로 독도를 침탈한 적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 최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하여 자국 관할 해역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이웃 나라들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게 되는 경우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합의를 통해 경계를 정해야 하나, 관련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데는 통상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 나라와 일본 간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우선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가 불분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하여 1999년에 새로이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어업 협정과 무관하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 독도 전경



▲ 독도 주변 해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합의되지 못한 채 어업상의 한·일 중점 수역으로 남아 있다.

1. 다음 글을 읽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알아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비판해 보자.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정광태 씨 가족은 서울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번지로 본적을 옮겼다. 또 이효영 씨도 부산에서 독도로 호적을 옮겼고, 강릉관 씨 가족도 독도를 새로운 본적으로 하였다.

한편, 독도로 주민 등록을 옮겨 놓은 사람으로는 울릉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가 있다.

2. 한·일 어업 협정에 관한 자료를 모아 토론해 보자.

* 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ly Economic Zone) : 영해 바깥 부분에 접속한 특정 수역에 대한 천연 자원의 탐사·개발, 인공 섬이나 시설의 설치·사용 등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개념. 영해의 기준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370.4km)까지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 출처: 최현섭 외 14인, 2001, 『중학교 사회 1』, 고려출판사, p. 75.

| 그림 2-24 | 7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독도관련 심화학습의 예

그리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0학년에서는 국토교육과 같은 국민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표방하였던 학생의 학습량 축소과정에서 독도관련 내용들도 축소되어 나타

난다. 즉 아래의 표에서처럼 하나의 교과서만 (법문사)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부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법문사 교과서의 경우, 영해를 지도로 표시하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와의 관계 등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학생들에게 독도문제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사회 1> 교과서의 전반부 지리영역이 (1) 국토와 지리정보 단원을 중심으로 영토교육 관련 내용이 국토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소재들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와 관련된 단원에서는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국토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토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도록 해주어야 하고 독도가 명백히 의미 있는 영토교육의 소재이므로, 우리의 영토와 관련된 논쟁지역에 대하여 고등수준에서의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재한 등(2002)은 우리나라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영해는 저조선, 해리, 경제수역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며,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게재하였다. 그 결과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 자료의 설명에서 독도를 영토로 표시하고 독도 주변의 영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루어진 내용들은 주로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사실적 정보의 나열과 영토교육과 관련된 일반적 내용의 제시가 중심이 되어 있어, 독도에 대한 역사지리적, 영토교육 및 영해 교육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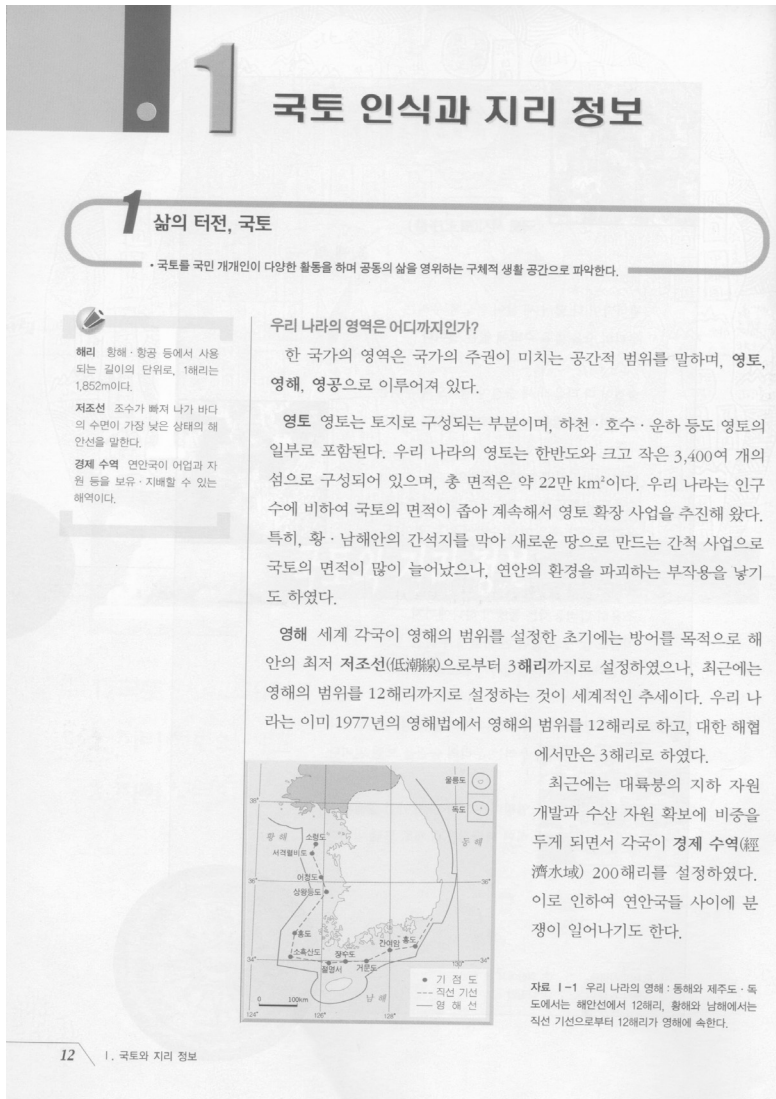
| 표 2-8 |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지리내용

학교급	교과서	학년	관련 단원(쪽수)	관련 내용
초 등 학 교	읽기	5-2	넷째마당 1. 우리의 의견 (141-145)	◦연변 동포 친구에게 독도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독도의 위치, 이름의 유래, 관련된 이야기 등을 사진과 함께 상세 소개. ‘독도는 우리의 친구’ 노랫말 소개.
	사회 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학습 자료로 게재된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 명기.
학교급	교과서	대단원	출판사 (쪽수)	관 련 내 용
중 학 교	사회 1	Ⅲ.남부지방 의 생활 (1) 해양진출 의 요지 (3)임해공업 이 발달 한 영남 지방	고려 출판 (75쪽)	◦읽기자료(“독도는 우리 땅과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 ◦사진자료(독도전경), ◦ 지도자료(배타적 경제수역) ◦탐구활동(“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을 비판해 보자”) → 독도 관련 내용을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과 함께 다루고 있으며, 탐구 활동을 제시.
			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78쪽)	◦도움자료(“독도이야기”), ◦사진자료(독도의 동도와 서도) ◦탐구문제(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 도움자료’의 형식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 를 제시.
			교학사 (73쪽)	◦사진자료(독도전경, 사진설명 : 우리나라의 가장 동 쪽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국방상 요지일뿐만 아니라 부근에는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도 중요 한 곳이다)
			성지 문화사 (70~73)	◦지도자료(남부지방의 지형도, 울릉도와 독도 위치) ◦본문기술(“동해에는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울릉 도와 독도가 있으며, 이 섬들은 수산업과 국방상 매 우 중요하다”) ◦사진자료(독도전경)
고 등 학 교	사회	I. 국토와 지리정보 1. 국토 인식 과 지리 정보	법문사 (12~13 쪽)	◦지도자료(12쪽, 우리나라의 영해에서 독도 제시, 13 쪽 한일 어업협정 구역에서 독도제시) ◦한일어업협정 내용의 소개에서 독도 설명 ◦탐구문제(신문이나 책자에서 독도관련 내용을 찾 아본다, 독도관련단체나 독도수호대 홈페이지를 검 색해본다)

| 표 2-8 | 제7차 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지리내용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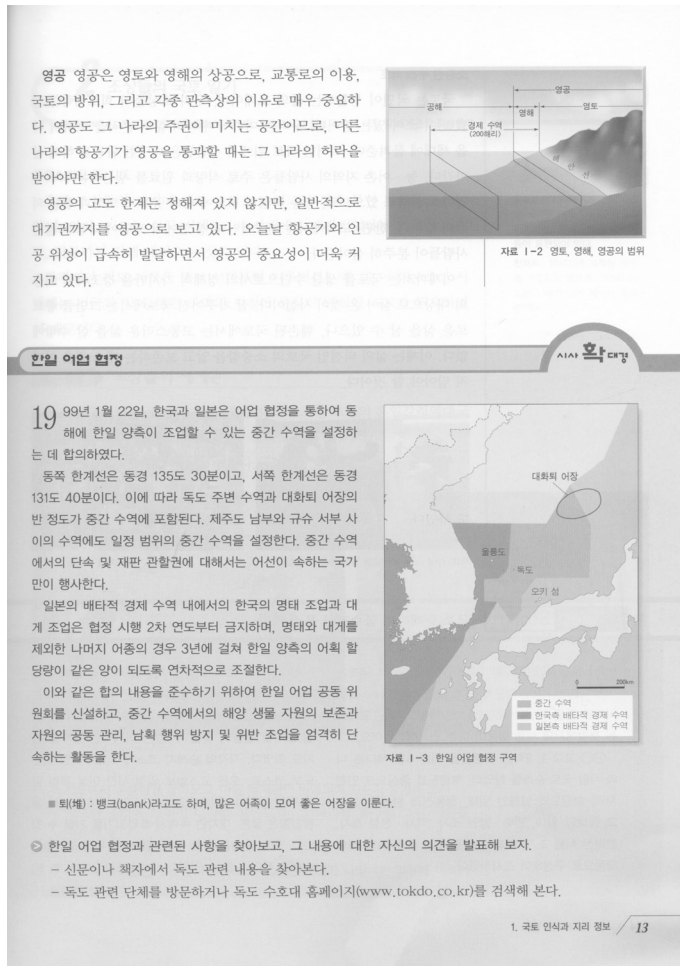
학교급	교과서	대단원	출판사 (쪽수)	관 련 내 용
고 등 학 교	한국 지리	I. 세계 속의 우리나라 (1.국토의 이해 2.위치와 지역형성 등소단원)	금성 (22~23쪽)	◦지도자료(22쪽 우리나라의 영해에서 독도 제시) ◦읽기자료(23쪽 역사속으로-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 - 독도의 역사, 위치, 독도관련 일본주장, 일본주장 반박 내용 ◦읽기자료 속 지도자료: 팔도전도 ◦사진자료: 독도 사진
			중앙교육 (30쪽)	◦사진자료: 독도 사진 ◦지도자료: 한일어업협정수역도 제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설명.
			지학사 (20~21쪽)	◦사진자료: (독도-주섬 동도와 서도, 주변 암초) ◦읽기자료: (생활 속으로- 간척과 영토) ◦지도자료: 우리나라의 영해(중간수역과 독도) ◦탐구활동: 한일어업협정논란(배타적경제수역 자료 제시)
			대한 교과서 (24~25쪽)	◦탐구활동 자료(우리나라 영해의 통상기선 소개) ◦지도자료: 한일어업협정수역도 제시(독도위치와 중간수역 포함), ◦우리나라의 영해(독도 위치 명시)
			교학사 (25~28쪽)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지도자료(영해범위에서 독도 위치 제시) ◦탐구활동: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독도의 중요성, 일본인들 호적 독도이전 대응 ◦탐구활동자료(독도는 우리 땅 노래 소개, 독도는 자원의 보고)
			법문사 (37쪽)	◦동해 중간선에 대한 지도 제시.
			두산 (25~28쪽)	◦읽기자료: 독도는 우리땅(시마네현 도시, 연합국훈령 등 소개) ◦지도자료: 우리나라의 4극, 팔도 충도(우산도 표시), ◦사진자료: 독도전경(각종 시설과 지명표기)
			천재교육 (28쪽)	◦읽기자료: 국토대탐험-독도기행 (독도의 형성과정 위치, 면적, 일본의 침탈과정 설명과 우리입장) ◦지도자료: 독도 지도 ◦사진자료: 독도 사진

* 출처: 권영배, 2006, 158-168; 교육인적자원부, 2003, 58.



* 출처: 김재한 외, 2001, 『고등학교 사회』, 법문사, p12.

| 그림 2-25 |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울릉도·독도·동해관련 내용 |



* 출처: 김재한 외, 2001, 『고등학교 사회』, 법문사, p12.

| 그림 2-26 | 7차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울릉도·독도·동해관련 내용 II

한편, 선택과목인 한국지리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내용이 보다 강조되어 다루어지며, 이 부분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 1>보다 깊이 있게 대부분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다루는 단위에서는, 세계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파악, 영역의 정의

및 구분, 영해설정 기준 및 배타적 경제수역, 영공의 정의와 중요성에 이르기까지 영토교육, 영해교육, 영공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이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영토와 영해에 관련된 내용에서 독도가 주로 다루어진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교 사회 1>에서 독도관련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던 법문사를 제외한 한국지리 교과서 전부가 매우 상세하게 독도를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법문사의 경우는 지도만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나머지 교과서들은 독도의 자연지리적 내용은 물론이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비롯하여 독도관련 쟁점들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것 중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ㄱ 출판사의 교과서를 보면(조화룡 외, 2002, 23),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읽기 자료에서 고지도(팔도전도)와 함께 독도문제의 배경과 독도의 역사, 국제법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등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여, 영토와 관련된 쟁점들과 독도 관련 역사, 법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영토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논의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단순히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토교육을 벗어나 지식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영토교육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교과서에서도 이와 같이 진일보한 독도관련 영토교육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ㄷ 출판사(조성호 외, 2002, 24-25)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자료에 대한 탐구과제를 제시하는 등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읽기자료, 지도자료 및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적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고 자료와 과제간의 상호연결성이 다소 떨어진다. 즉 독도와 관련된 영해문제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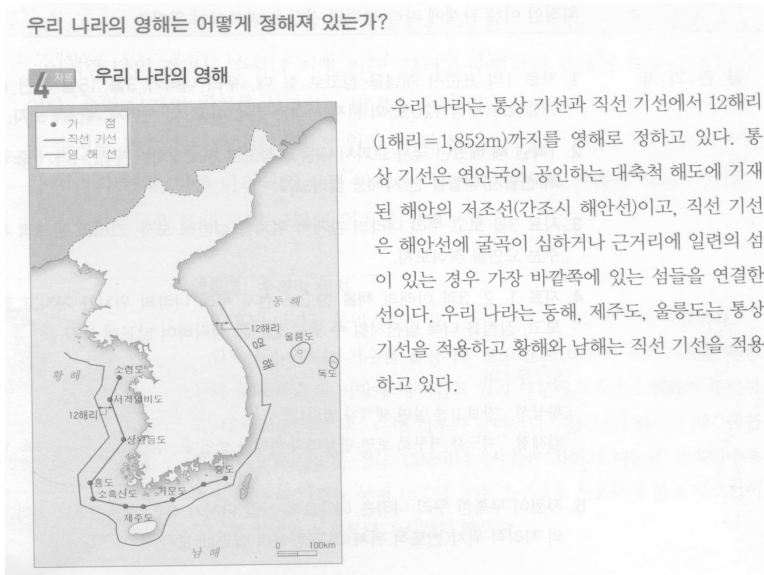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독도관련 영토교육 내용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영해와 관련하여 독도 기선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소지가 남았다고 기술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다음으로 ③ 출판사의 내용을 보면, 독도의 자연지리와 역사지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독도의 자연지리적 형성과정, 위치, 면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과정을 역사적 기술, 우리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토교육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었으며, 독도와 관련된 영해교육의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다룸으로써 독도의 영토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조화룡 외, 2002, 『고등학교 한국지리』, 금성교과서(주), p23.

| 그림 2-27 | 울릉도·독도 관련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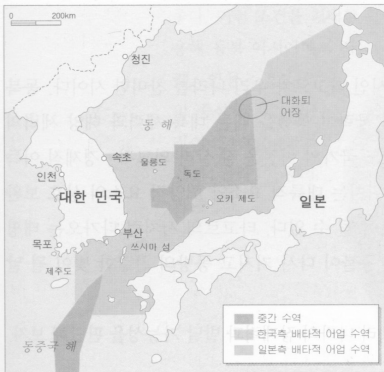
* 출처: 조성호 외, 2002, 『고등학교 한국지리』, 대한교과서(주), p24.

| 그림 2-28 | 울릉도·독도 관련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II

5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의 범위가 해안으로부터 12해리인데 비해,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6 한·일 어업 협정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에 의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선포되었으나 한·일 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서 경제 수역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양국은 각국의 연안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하고(35해리), 가운뎃의 일부 수역을 중간 수역으로 하는 어업 협정 체결을 추진, 1999년에 발효하였다.

협정 체결의 결과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되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남았다. 또 대화퇴 어장의 45%가 중간 수역에 포함되어 협정 체결 후에도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열린과제

1. 자료 4를 보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1. 동해안과 황·남해안의 영해 설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자.

1-2. 만약 황해안의 간석지에 간척 사업을 한다면 각 영역별(영토, 영해, 영공)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말해 보자.

2. 자료 5를 참고로 하여 원양 어업 어획량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 까닭을 추측해 보자.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생산량 (천 톤)	1,024	741	887	897	715	829	722	791	651

- 한국 원양 어업 협회(www.kodefa.or.kr) -

3. 자료 6과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주변국과의 어업 협정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자.

도움말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maf.go.kr)

국립수산물진흥원 홈페이지 (www.nfrda.re.kr)

한국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www.kinds.or.kr)

* 출처: 조성호 외, 2002, 『고등학교 한국지리』, 대한교과서(주), p25.

| 그림 2-29 | 울릉도·독도 관련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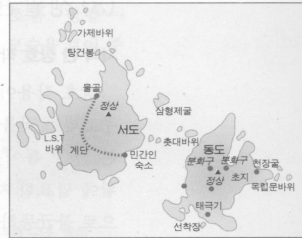
탐구 활동 /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행정 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한다. 위치는 울릉도 동남쪽 약 90km 지점에 위치하여 일본의 오키 섬보다 약 70km가 가깝다.

일본은 1905년 1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내각 회의 결정의 이유를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보면 이미 삼국 시대부터 우리나라 영토임이 입증되고 있다. 또, 조선 시대 이래 고지도와 고문헌에서 우리나라 영토임이 확인되고 있다. 강원도 울진군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의 칙령에 의해 울릉군의 한 부속 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시켰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7년 11월 독도에 총 177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부두와 20m의 간이 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 접안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준공 기념비에는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을 새겼다.

독도에 있는 해조류는 천연 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또, 독도는 위치상으로 해양 자원의 확보 및 영역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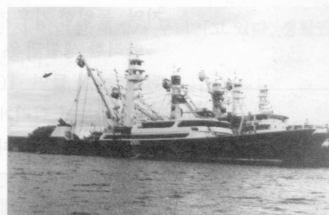
과제 1 조선 시대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리는 고문헌이나 고지도를 찾아보자.

과제2 독도에는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자.

자료실 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의 바다를 말한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물 속과 땅 속에 있는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섬 건설 및 보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안국이 아닌 국가는 영해를 제외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배와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고, 바다 밑에 전선, 광케이블 등을 매설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따라서 EEZ의 성격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3국에 대하여 항해를 비롯한 많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원양 어선 경제 수역에서는 연안국과의 합의하에 타국의 어업 활동이 가능하다.

* 출처: 황만의 외, 2002, 『고등학교 한국지리』, 지학사, p21.

제 3 장 지리교재를 통해서 본 해방이후 독도 및 동해교육의 전개과정

1. 중심내용의 변화양상

해방이후 지리교재에 나타나는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을 앞의 장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내용들은 교수요목기에서 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기까지 중등 지리교과서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내용기술, 지도, 사진 등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지속적으로 독도 및 동해 관련내용들이 다루어져 왔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6차 교육과정기를 넘어서면서 내용의 폭과 깊이의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6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와서 종래의 단순한 1~2개 문장과 사진 게재 중심의 사실적 지식전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심화학습 및 탐구주제로서 채택되어 독도나 동해관련 내용이 1쪽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앞 장에서는 주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이 교과서 단원의 주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중심 내용들이 시기별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해방이후 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독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은 국토의 동단(위치)으로서의 독도에 대한 언급, 어업 등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언급,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해양주권선에 대한 언급, 동해관련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교과서에 나타난 기술들을 종합

하여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도가 국토의 동단에 위치한다는 내용은 변함없이 표기를 하고 있지만, 시기별로 다른 내용에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1970년대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의 교과서는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 모습이 두드러지며,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인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에도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이 매우 약하게 다루어지는 두 개의 특징적 시기가 나타나고 있다.

3차 교육과정기는 군사정권기로서 중등학교 교과서 중 중학교가 국정 교과서체제가 되었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정부가 결정하여 정권적 차원에서 교과서 및 교육내용을 통제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도 교육은 거의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국교정상화와 일본의 일제지배배상금과 경제원조 등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당시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회복과 함께 오키나와 반환 등의 일본 내 영토의식과 야욕이 크게 부각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5차 교육과정기는 통합사회과의 등장에 따른 영향으로 영토 및 영해 관련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통합주제들에 비해 밀려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5차 교육과정기를 보면, 고교 한국지리의 경우는 4차 교육과정기처럼 독도 및 동해 관련 또는 영토 및 영해관련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거의 4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내용을 출판사에 따라 답습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표 3-1>의 각 시기별 독도 및 동해관련 교과서 기술내용을 모두 추려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편 일본과의 관계 및 이에 따른 당시 정권 내지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교과서에 반영된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국가적인 인식, 외교적 상황 등 다양한 면이 반영되어서 교과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차 교육과정기와 5차 교육과정기에 독도 및 동해관련 교과서 내용이 거의 없어지거나 매우 약화되는 것은 다음 표에서 살펴보면, 한국-일본 간의 관계와 우리나라의 정부입장, 일본의 우경화된 정부입장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이들 관계가 교과서의 내용을 다루는데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3-1 | 시기별 독도 및 동해관련 중심내용의 변천

시기 주요 내용	교수 요목기 (1946~ 1954)	1차 교육 과정기 (1954~ 1963)	2차 교육 과정기 (1963~ 1973)	3차 교육 과정기 (1973~ 1981)	4차 교육 과정기 (1981~ 1987)	5차 교육 과정기 (1987~ 1992)	6차 교육 과정기 (1992~ 1997)	7차 교육 과정기 이후 (1997~)
국토의 동단 위치 언급	○	○	○	○	○	○	○	○
경제적 중요성 언급	○	○	○	없음	○	○	○	○
군사적 중요성 언급	없음	○	○	없음	○	○	○	○
독도관련 내용기술	울릉도 에서 다루어 지나, 독립적 1~2개 문장 으로 기술	울릉도 에서 다루어 지나, 독립적 1~2개 문장 으로 기술	울릉도 에서 다루어 지나, 독립적 1~2개 문장 으로 기술	없음	울릉도 에서 다루어 지나, 독립적 1~2개 문장 으로 기술	울릉도 에서 다루어 지나, 독립적 1~2개 문장 으로 기술	심화 및 탐구 학습 주제로 1/2쪽 정도로 분량 확대	심화 및 탐구 학습 주제로 1~2쪽 으로 분량 확대
일본의 도발 언급	○ (중등 사회생 활과 우리 나라, 탐구당)	○ (중등 국토 지리, 민중 서관)	○ (중학 사회, 사조사; 고교표 준지리, 동아)	없음	○ (고교 지리 I, II, 고려서 적)	없음	○ (고교 한국 지리, 보진재)	○ (고교 한국 지리 대부분의 교과서)
해양주권선 언급	없음	○	○	없음	○	없음	○	○
독도 및 동해관련 해양의 중요성 언급	○	○	○	없음	○	없음	○	○
독도 사진 계재유무	○	○	○		○	○	○	○
기타 특이사항	대마도 영유권 언급				영해기 선 언급시 작			

2. 독도 및 동해관련 지리교과서 기술 내용

1) 교수요목기(1946 ~ 1954)

-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정홍헌, 이기섭, 이부성 저, 정음사) 1946, 1947. -4극에서 독도를 죽도로 언급(p.6)

- 『중등사회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노도양 저, 탐구당, 1949)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60해리 가면, 독도(獨島)라 하는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은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되었는데 해식지형을 이룬다. 물개 등이 살아 이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섬의 영유(領有)에 관하여서는 일본과 사이에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다”(pp.152~153).

-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생활』(정갑 저, 을유문화사, 1950).

“울릉도에서 동쪽을 향하여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가장 동쪽(동경 131° 57′) 섬인 독도(獨島-주위 2km)가 있다”(p.143).

“부산에서 대한해협을 약 50km쯤 격하여 대마도(對馬島)가 있다. 크기가 약 679km²인데 열은 바다를 격하여 북의 하도(下島)와 남의 상도(上島)로 되어졌다.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어서 이 섬의 귀속은 정치적 세력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근세 1세기間は 일본에 속하였으나 그 이전은 우리나라의 영역이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전통적 영역을 분명히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부속되어 그 존재를 명백히 할 것이다”(p.146).

○ 『중등사회생활과 최신 우리나라 지리』(이지호 저, 민교사, 1953)

“우리나라의 바다는 기후와 양항(良港) 발달에 영향한바 클뿐더러, 우리들에게 생활자원과 염가(廉價)인 교통로를 제공하였고, 또한 우리 민족의 경제발전에 많은 이편(利便)을 주고 있다.....바다는 옛날에는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障礙物)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교통기관 중 그 운임(運賃)이 가장 염가일뿐더러 도로, 철도와 같이 그 부설비(敷設費)가 필요하지 않고, 세계의 공해(公海)를 통하여 지구상 어떤 지역과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따라서 바다는 국가발전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pp.16~17)

2) 1차 교육과정기(1954 ~ 1963)

○ 『최신 국토지리』(최복현 지음, 민중서관, 1956)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바위가 많은 무인도이지만 국토방위상에 중요한 곳이다. 원래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섬을 탐낸다는 것은 그들의 침략적 근성에서 나오는 버릇이다.”(p.107)

“우리 한국은 우리 근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가의 예에 따라서 해양주권선을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모하게도 이 주권선을 넘어서 자주 우리의 어장을 노략질하고 있다. 이 어장은 60만 어민의 생명선인 동시에 우리의 중요한 식료의 생산터인 것이다. 영토와 마찬가지로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 (최복현, 1956, p.45)

-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이지호 지음, 1956, 을유문화사)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화산도이며 무인도이다. 어업과 국방상 중요한 섬이다”(별지).

-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김상호 지음, 1956, 일조각)- 없음

3) 2차 교육과정기(1963 ~ 1973)

- 『중학 사회 I』(김경성 외 5인, 법문사, 1966)

“독도는 울릉도 남동쪽 100km 지점에 있는 화산도이며, 경사가 급한 동도와 서도의 두 섬으로 되어 있다. 독도는 원래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것을 탐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곳에 등대를 건설하고 경비병을 파견하고 어민을 보고하고 있다.”(p.75)

- 『중학 새로운 사회』(노도양 외 6인, 사조사, 1971)

“울릉도의 남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독도라 하는 무인도가 있는데,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되었으며, 해식에 의해 급경사를 이룬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영토인데, 일본은 이를 탐내어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릉도는 광해군 때부터 일본과의 사이에 80년간이나 말썽이 있었다가 결국 숙종 21년 우리나라 영토로 재확인되었다. 1914년 이래 지금과 같이 경상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p.77)

○ 『고등 표준지리 I』(동아출판사, 최홍준, 1970)

“우리나라는 한걸음 앞서서 개화를 이룩한 일본에게 침략의 희생이 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통·통신 기관이 발달함에 따라서 세계의 거리가 단축되었으므로 아시아와 태평양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화와 접하는 데에 불편한 위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p.5)

“해방 후에는 기술이 앞선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6·25 사변의 혼란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획고는 30만t을 전후할 정도로 낙후하고 말았다. 이 무렵에 일본은 다시 수산업의 세계 제패를 노려서 어족이 많은 우리나라의 근해를 침범하는 일이 많았다. 할 수 없이, 1952년 1월 15일에 여러 외국의 예를 따라서 해양 주권선을 선포하여 허가 없이 이 선을 넘고 우리나라 근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과 선박을 막았다.” (p.92)

“(독도)이 섬은 위치나 역사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일본이 영토권을 주장하여, 양국의 분쟁 지역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등대를 건설하고 경비대를 파견하여 어민들을 보호하고 있다.”(p.241)

○ 『고등 표준지리 I』(이지호, 삼화출판사, 1972)

“동해상의 울릉도는 제주도와 달리 물이 풍부하나, 경지가 매우 좁아 경사지에 화전이 개간되었으며, 식량의 자급은 반년분에도 미달한다. 이리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며, 이곳 주민의 대부분은 경주·영일 등 동해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한편 독도는 동·서 두 섬으로 된 암산이고, 음료수가 없으나, 어업상·국방상 중요하다”(p.221~222)

4) 3차 교육과정기(1973 ~ 1981)

- 『중학 사회1』(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1979)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우리나라의 동쪽 끝을 이루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전복·미역 등을 따낸다.”(p.55)

- 『고등 국토지리』(문교부, 1979)-4극으로서 독도의 경도 언급(p.2)

5)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 『중학 사회1』(문교부·한국교육개발원, 1985)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어업뿐만 아니라 군사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pp.67~68)

- 『고등학교 지리 I』(김상호 외 3인, 금성출판사, 1984) -영해 12해리로 기술 (독도 주변 표기포함)

- 『고등학교 지리I』(오홍석 외 2인, 장왕교재연구원, 1985)-우리나라의 4극으로 독도기술(p.23), 영역으로서 독도기술(p.25)

- 『고등학교 지리I』(박동원 외 4인, 동아, 1983)-언급없음

- 『고등학교 지리I』(조동규 외 2인, 고려서적, 1984)-우리나라의 4극으로 독도기술 (p.24)

○ 『고등학교 지리II』(오홍석 외 2인, 장왕교재연구원, 1985)

“우리나라는 바다로 둘러싸인 까닭에, 영토가 반도부만이 아니라 이에 부속된 도서부로 구성되고 있다. ... 더욱이, 가장 연변에 위치한 도서들은 영해를 획정할 수 있는 기선이 되므로 영토의 전초지적 가치가 있다. 현재, 영해를 획정하는 기선은 서해상의 소령도·서격렬비도·어청도·상왕등도·횡도·홍도(紅島)·소흑산도를, 남해상의 절명도·장수도·거문도·홍도(鴻島)를 각각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이 고립되어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의 선을 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독도는 영해선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곳이 된다.”(p.62)

○ 『고등학교 지리II』(김상호 외 3인, 금성출판사, 1984)

“독도는 울릉도에서 100여 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화산섬으로서, 어업상이나 군사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p.89).

○ 『고등학교 지리II』(이찬 외 4인, 교학사, 1985)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화산도로, 음료수가 없어 주민은 살 수 없으나, 어업, 국방의 기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섬이다”(p.73)

○ 『고등학교 지리II』(조동규 외 2인, 고려서적, 1983)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화산섬으로 된 무인도이다. 동서 두 개의 큰 섬과 그 밖에 몇 개의 작은 섬으

로 이루어진 곳이지만, 어업상, 군사상 중요한 곳이다. 일본은 이 섬이 자기들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다”(pp.71~72)

6) 5차 교육과정기(1987 ~ 1992)

○ 『중학 사회1』(교육부/교육개발원, 1989)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어업 뿐만 아니라 군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pp.67~68)

○ 『한국지리』(주경식 외 3인, 1990, 능력개발)

“동해는 평균 수심이 1700m나 되는 깊은 바다로 해저 분지가 매우 넓으며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해저 분지는 중생대 말에서 제 3기에 걸쳐 현재의 일본이 한반도에서 점점 갈라져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반의 침하와 해저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 형성되었다. 동해에 대륙붕이 좁게 나타나고 울릉도를 제외하고 섬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p.92)

○ 『한국지리』(서찬기 외 4인, 1989, 금성사)

“울릉도 부분을 다루면서 “울릉도 남동쪽으로 90km 떨어진 독도 역시 화산도인데, 두 개의 큰 섬과 30여개의 암도로 구성된다. 독도는 어업 및 국방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다”(p.272)

- 『한국지리』(황재기 외 3인, 1990, 교학사)

“울릉도로부터 남동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독도 역시 화산섬으로 음료수가 없어 주민은 살기 어려우나 어업, 국방의 기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섬이다”(p.254)

7)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 형기주 외 3인, 『공통사회(하) 한국지리』, 1996, 보진재, p.36.

- 박삼옥 외 4인, 『공통사회(하) 한국지리』, 1996, 동아출판사.

“동해 가운데에는 화산섬인 울릉도와 독도가 위치해 있고, 그 북쪽에는 대화퇴(大和堆)라는 수심 300~500m의 넓은 뱅크가 형성되어 있다”(p.81)

- 김주환 외 인, 『공통사회(하) 한국지리』, 1996, 교학사.

“우리나라의 경우 황해상에 있는 백령도, 동해상에 있는 독도 등은 국토방위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p.42)

8) 7차 교육과정기 이후(1997~)

- 『중학교 사회 1』(최현섭 외 14인, 2001, 고려출판사, p.75)

- 『고등학교 사회』(김재한 외, 2001, 법문사, pp.12~13) -> 본문 쪽 참고

- 『한국지리』(황만익 외, 2001, 지학사, pp.20~21) -> 본문 쪽 참고

○ 『한국지리』(조성호 외, 2002, 대한교과서(주), pp.24~25)-> 본문 쪽 참고

○ 『한국지리』(조화룡 외, 2001, 금성출판사, pp.22~23)-> 본문 쪽 참고

3차 교육과정기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후유증이 있었으며, 이어서 속개된 한일각료회담과 이를 통한 경제적 지원에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즉 한·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일본의 경제지원이 완료된 한일관계의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일본 각료들의 잇단 망언과 영유권주장이 노골화되었던 것에 비해 한국의 군사정부에서는 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억제하였던 것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부터 오키나와 반환 등 여러 가지 영토사건을 겪었고 또한 일본의 군사적, 영토적 야욕이 바탕이 된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일본의 우경화가 시작되었던 시기이어서 한일관계가 독도관련 내용을 지리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에 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기는 1980년대의 신군부와 일본과의 밀월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있었던 <한일 21세기 위원회>의 설치 등 한일 동반무드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대외 개방이 맞물리면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수면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독도 및 동해 교육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1990년대 초의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는 독도 및 동해 관련한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관련 분쟁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기부터는 독도관련 영토교육의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 및 사건, 관련 인물, 쟁점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지면서 영토 및 영해교육이 보다 많은 진전을 보였다.

이러한 진전은 2,000년대 이후 독도 및 동해 관련 많은 활동과 연구 성

과물의 등장과 발굴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관·학계의 공동노력의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영토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정당성 연구, 즉 우리나라의 영토로의 편입과정, 관리, 지배관련 사료의 제시, 고지도나 고문서를 이용한 독도에 대한 지명표기 방식과 내용의 탐색, 실효적 지배 방안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 표 3-2 】 독도관련 일본과의 관계일지

* 교육과정 성립이전의 중요사항
▲ 1877년 : 일본 메이지 정부, 시마네현에 울릉도(竹島)와 독도(外一島)의 소속을 조사해 보라고 지시.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함. 이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다시 지시. ▲ 1900년 :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石島)를 울릉군에 편입.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1905년 1월 28일 : 일본 내각회의, 독도 일본 편입 결정. (‘독도를 죽도(竹島)라고 부르고,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한다’) ▲ 1905년 2월 22일 : 시마네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 고시. ▲ 1905년 11월 : 대한제국,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 박탈됨. ▲ 1906년 4월 : 일본 ‘독도 편입’ 대한제국에 통보. 한국은 외교권 박탈로 대응 못함. 1) 교수요목기(1946~1954) ▲ 1946년 1월29일 : 맥아더 연합국 사령부 최고사령관, SCAPIN 677호에서 울릉도, 리앙쿠르 열암(竹島),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함. 이후 연합국은 1952년 4월 대일 강화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변경한 적이 없음. ▲ 1948년 6월 8일 : 미군의 독도폭격 연습사건 ▲ 1952년 1월18일 : 이승만 대통령, 독도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인접 해상에 포함하는 ‘평화선’ 선언. ▲ 1952년 9월15일, 22일, 24일 : 미군의 독도폭격연습 ▲ 9월 21일 :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한국산악회 주관) 9월15일, 22일, 24일의 폭격을 확인 → UN 군비국과 합의로 폭격연습중단

| 표 3-2 | 독도 관련 일본과의 관계일지(계속)

* 교육과정 성립이전의 중요사항	
▲ 1953년 4월 : 일본인들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독도에 상륙, 조난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유권 표시를 함. 이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일본인들을 몰아냄. (1954년 5월 설도 있음)	
▲ 1953년 4월 20일 : 홍순칠 독도의용대 결성	
▲ 1953년 4월 : 한일회담준비 어업분과위원회의, 일본은 평화선을 부정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	
▲ 1956년 4월 8일 : 독도수비임무를 국립경찰이 맡음	
2)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 1962년 2월 : 고사가 일본외상 독도문제 국제재판소 제소 응소요청	
▲ 1962년 9월 : 제6차 한일회담 준비회담에서 이세키 이나지로 국장 “독도는 무가치한 섬” 독도 폭파를 주장	
▲ 1962년 10월 : 정부는 독도문제 국제재판소 불응소 입장을 밝힘	
▲ 1962년 11월 : 김종필-오오히라 회담	
3) 2차 교육과정기(1963~1973)	
▲ 1964년 3월 24일 : 한일회담반대 시위	
▲ 1965년 2월 20일 : 한일기본조약 한일 가조인	
▲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 및 한일어업협정	
▲ 1967년 8월 9~11일 한일각료회담 연례화 제1차 개최	
* 1970년대 일본의 우경화가 표면화됨	
(1970년 11월 15일 대표적 우파 문인 미시마 유키오 자결)	
* 1970년 6월 17일 미일 오키나와 반환 조약으로 일본이 오키나와를 되찾음.	
4) 3차 교육과정기(1973~1981)	
▲ 1974년 1월 30일 : 한일대륙붕협정 체결	
▲ 1974년 1월 : 일본총리, 9월 외무장관 망언으로 8차 회담무산 및 무기연기	
▲ 1974년 12월 :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협박	
▲ 1975년 9월 : 한일각료회담 재개	

| 표 3-2 | 독도 관련 일본과의 관계일지(계속)

* 교육과정 성립이전의 중요사항	
▲ 1977년 9월 : 제9차 한일회담 ▲ 1977년 : 미국지명위원회 독도를 리앙쿠르락으로 변경하여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설정 ▲ 1977년 :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 영유권 망언. ▲ 1980년 : 최종덕 독도전입	
5) 4차 교육과정기(1981~1987)	▲ 1981년 9월 : 11차 한일회담(3년만에 열림) ▲ 1981년 : 전두환 방일 40억불 차관도입, 독도 일반인 출입금지 ▲ 1981년 : 독도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물 설치 ▲ 1982년 11월 16일 :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 1982년 : 12차 한일회담후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 발생 ▲ 1984년 :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외상 영유권 망언 ▲ 1985년 :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경제협력 타결 ▲ 1985년 8월 15일 : 일본우파인 나카소네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 1986년 12월 : 14차 한일회담이 도쿄에서 열려 <한일 21세기 위원회> 설치
6) 5차 교육과정기(1987~1992)	▲ 1988년 : 미국지리원 독도를 리앙쿠르로 변경하여 표기 ▲ 1990년 : 15차 한일회담 서울에서 열림, 재일교포 지문날인제 폐지 ▲ 1991년 : 김성도 독도전입
7) 6차 교육과정기(1992~1997)	* 1994년 11월 유엔신해양법의 규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이 핫이슈가 됨 ▲ 1996년 2월1일 : 일본 문부성, 김정 중·고교 지도 5종,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 ▲ 1996년 : 일본 200해리 EEZ 선포, 구 한일어업협정 종료시킴 ▲ 1996년 10월 :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 독도 영유권 주장.
8) 7차 교육과정기 이후(1997~)	▲ 1997년 : 독도접안시설 완공

| 표 3-2 | 독도 관련 일본과의 관계일지(계속)

* 교육과정 성립이전의 중요사항

- ▲ 1998년 8월 : 일본 국가와 국기를 군국주의시대 것으로 부활
- ▲ 1998년 9월 : 한일 양국 어업협정 타결. 독도는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 정부, 독도 지위(영유권)에 아무런 영향 없다고 발표.
- ▲ 1998년 11월 18일 : 신한일어업협정 비준
- ▲ 2000년 9월 19일 :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KBS 인터뷰에서 “독도는 우리 땅” 망언.
- ▲ 2000년 12월 : 일본 자위대, 특정 섬 탈환 작전 훈련.
- ▲ 2001년 2월 27일 :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주장.
- ▲ 2002년 : 일본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 ▲ 2005년 2월 23일 : 시마네현 의회, 독도 편입 100주년(2005.2.22)을 기념해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망언.
- ▲ 2005년 3월 8일 : 일본 경비행기, 독도 상공 진입 시도.
- ▲ 2005년 3월 16일 :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2월22일)’ 조례 통과.
- ▲ 2005년 3월 17일 : 한국,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조치 취한다’는 내용의 대일 신독트린 발표.(기존의 ‘조용한 외교’ 방침 일부 수정)-> 일반인 독도방문 허용
- ▲ 2005년 3월 :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국회서 “일본 영토로 학습지도요령에 포함해야 한다” 발언.
- ▲ 2005년 4월 26일 : 한국 국회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5년마다 독도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
- ▲ 2005년 :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처음 포함.
- ▲ 2006년 3월 29일 :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하라고 요구.
- ▲ 2006년 4월18~22일 : 일본 독도 인근 해양조사차 측량선 출발. 차관급 협의 후 일본 측량선 귀항.
- ▲ 2006년 미국지리원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기

| 표 3-2 | 독도 관련 일본과의 관계일지(계속)

* 교육과정 성립이전의 중요사항
* 2007년 이후 (7차 개정교육과정 이후) ▲ 2008년 3월: 일본 정부, 신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 수록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의지 감안해 신지 않고, 지도요령 보완하는 해설서에 담기로 함. ▲ 2008년 7월14일: 일본 문부과학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 한국, 권철현 주일대사 소환하는 등 강력 반발. ▲ 2008년 12월: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발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일본의 위치와 영역, 국가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시킬 것’, ‘일본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는 세계적 시야에서 일본의 위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언급할 것’이라고 표현. ▲ 2009년 12월25일: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 지리·역사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입장 반영. ‘독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심화학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하게 함.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 “독도는 일본땅” 발언. ▲ 2010년 4월: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 일본 국회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 안 쓰기로 결심하고 있다”고 답변. ▲ 2010년 5월11일: 일본 문부과학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일본 시민들에게 공개. ▲ 2010년 9월10일: 일본 방위백서, 6년 연속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

3. 영토교육의 접근방법의 측면

위에서의 해방이후 중등 지리교재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 및 영해와 관련된 지리적, 교육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독도 영토교육을 보면, 독도 및 동해관련 교육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다는 지리교과서에서조차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교육방향의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그동안 일본의 경제적 지원과 우경화에 따른 영토야욕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정권차원에서의 국정교과서체제를 통해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의 내용을 축소하였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걸쳐서 국정교과서 체제가 완전히 풀린 7차 교육과정기에는 매우 다양한 내용과 접근을 통하여 독도관련 교과서 내용들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권차원에서의 독도 및 동해관련 교육내용들은 영토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확장전략보다는 소극적인 방어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도는 특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접경지대이므로, 독도와 동해에 대한 기민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영토교육과 영해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주권행사 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지어 국제정치,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면에서 지속적인 독도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정부-연구기관-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독도교육이 체계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임시방편적인 영토 지키기 위주의 소극적 영토교육을 탈피하고 물리적 실체인 국토를 넘어 적극적으로 세계로 진출하려는 영토의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서태열 외 2인, 2007, 2).

한편, 임덕순(2006, 12~13)은 분쟁중인 영토, 영토관련 사건들, 인근국의 영토책략, 영토확대의 가능성 찾기 등을 영토교육의 주목할 내용으로 보면서, 시사적 방법, 현지답사,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의 영토관련 내용의 강화라는 세가지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영토와 정체성, 영토와 세계와 같은 차원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로 당위론적인 국토애교육, 맹목적인 충성에 근거한 주입적 영토교육 내지 국토교육 이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영토에 대한 지식, 국토공간의 특수성과 일반성, 장소로서의 국토에 대한 소속감 및 장소감에 근거한 영토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서태열 외 2인, 2007)이 제시되고 있다.

서태열 외 2인(2007)은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영토교육 내지 국토교육을, 영토교육은 국토공간에 대한 단순히 배열된 사상과 그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고 있고, 영토교육이 실질적이지 못하여 외부자성(outsideness)을 키우는데 머물고 있어 단순히 방문하는 행태만을 유지하게 되며 국토가 개인과 국민의 생활무대로서 실재감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영토교육은 공간 안에서 올바르게 존재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공간에 대해 올바르게 관계하는 방식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국수주의적인 맹목적인 국토애를 기르는데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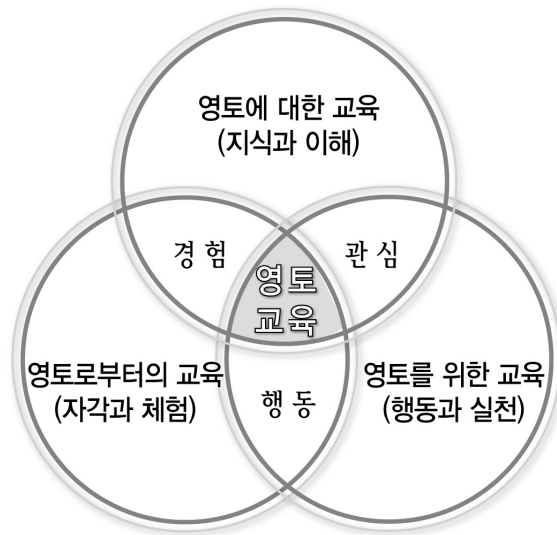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서태열 외 6인(2009, 18~19)은 바람직한 독도의 영토교육의 방향을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여주는 교육, 영토체험을 통한 동감적 이해를 높여주는 교육, 윤리적 자각과 책무성을 느끼는 교육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에 대한 정확한 지리적 지식과 정보 즉 지형, 기후 등의 자연지리에 대한 정보와 독도의 지정학적 가치, 경제지리적 가치 등 관련 지리지식을 제공하여 장소로서의 독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독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여주는 영토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영토로서의 독도에 대한 자각, 국토애와 영역감(sense of territory)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여 동감적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영토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영토에 직접 가보지 못하고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그 장소에 대한 관심과 느낌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간접적 내부자성(vicarious insideness)만 키울 가능성이 커지므로, 다양한 인지적 조작 경험과 실질적인 장소체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여 이를 극복하여 동감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독도에 대한 동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적 자각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고, 영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토의식-장소감 바탕의 영토 정체성과 같은 정의적 측면과 경험-체험-실행과 같은 행동적 측면이 잘 결합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으로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고, 서태열 외 2인(2007)이 제시한 세 가지 형태의 영토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해방이후 중등 지리교과서에 실린 독도 및 동해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그들에 따르면, 영토교육은 영토 및 영토와 관련된 사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영토에 대한 교육’, 영토 속에서의 영토에 대한 체험을 중심으로 도덕적 자각, 국토윤리의 형성에 근거한 국토에의 형성과 영역감(sense of territory)를 형성시키는 ‘영토로부터의 교육’, 동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윤리적 자각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윤리, 국가윤리를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자신이 국토의 일부임을 자각하는 진정한 소속감을 가지도록 하는 ‘영토를 위한 교육’의 세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그림 3-1 참조>.



* 출처 : 서태열 외 2인, 2007

| 그림 3-1 | 바람직한 영토교육의 모형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이후 울릉도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고 실질적으로 울릉도를 연결하는 교통로, 울릉도를 둘러싼 수산업과 해양의 중요성은 교과서에 끊임 없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왔지만, 독도의 경우 해방직후의 혼란상태였던 교수요목기의 교과서에서보다 오히려 부족하였던 3차 교육과정기와 5차 교육과정기의 독도 교육의 두 번의 단절기가 존재한다. 또한 2000년대에 와서야 일반인의 독도상륙이 허가되어 실질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독도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인지적 조작 경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여 실질적 영토 체험의 부족함을 극복하여 동감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관심->체험->자각, 애착, 경외감-> 동감적 이해로 이어지는 기초적인 ‘영토로부터의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영토의식-장소감 바탕의 영토 정체성과 같은 정의적 측면과 경험-체험-실행과 같은 행동적 측면을 결합

하는 ‘영토를 위한 교육’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중등 지리 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교수요목기에서 2차 교육과정기까지는 다만 당시의 낮은 사회적 논의의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 등에 비추어볼 때 교과서에서의 표현과 기술의 내용이 세련되지 못하였지만 영토 및 해양주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잘 드러나며, 독도 및 동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전달을 위주로 하는 ‘영토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차 교육과정기는 이러한 기초적인 영토 동해관련 영토교육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으며, 4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의 경우 여전히 암흑기였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인정제가 활성화되면서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의 내용들이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5차 교육과정기의 암흑기가 나타난다.

그러나 교수요목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3차와 5차의 단절을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다만 독도에 대한 교육의 범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도에 대한 언급, 어업 등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언급,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해양주권선에 대한 언급, 동해관련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독도교육내용의 체계화와 범주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6차 교육과정기까지의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은 학생의 탐구나 조사 등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독도로부터의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직접 독도에 상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독도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토의식 및 영역의식 등 직접적인 자각과 체험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독도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나타나 독도가 하나의 탐구주제 내지 학습주제로 등장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학습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독도로부터의 교육”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기 전에는 독도에

대한 내용은 부분적인 내용의 주입과 간단한 사실적 지식과 사진 등 관련 정보의 제공 좀 더 나아가면 관심가지기에 머무는 정도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영토에 대한 교육’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기를 넘어 2000년대에 이르면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독도문제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방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내용들이 등장한다. 즉 독도관련 기술내용들이 체계화되면서 “독도를 위한 교육”이 나타나고 있고 진정한 의미의 영토 및 영해논쟁의 핵심으로서 독도문제해결을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독도관련 내용기술의 전개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독도 및 동해와 관련한 영토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방이후 교과용 도서인 중등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9개시기의 교육과정시기별로 중등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들을 검토하되, 독도 관련 내용은 일본과의 관계 및 국제적 상황이 관련되어 있는 한국정부의 산업화의 추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1) 광복 직후~1960년대 (산업화이전) 2) 1960년대~1980년대 (산업화시대) 3) 1980년대~1990년대 (산업화후기) 4) 2000년 이후로 연구대상 시기를 재구분하였으며 각 시기별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기술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기별의 교과용 도서에 기술된 독도기술내용의 중심내용, 그리고 영토교육의 접근방법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시기별 독도 및 동해관련 교과서 기술내용의 특징과 중심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 직후에서 19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의 시기를 보면 나름대로 독도 및 동해교육은 영토 및 영해교육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방직후의 혼란기에서도 지리교과서는 일제의 영토침탈야욕을 기록하고 경계하였고, 독도를 “울릉도와 독도”라는 주제로 울릉도와 함께 기술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그림지도로 제시하는 가하면, 대마도에 이르기까지 영토주장에 대한 매우 강한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영토교육 및 영해교육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던 1차 교육과정기부터 공적인 제도 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1차 교육과정기(1954~1963)의 지리 교과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전통에 따라 남부지방의 일부로써 주로 “울릉도와 독도”라는 소주제하에서 소개되고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면서 우리나라의 어장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해방직후처럼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한 야욕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토수호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둘째, 산업화시대를 보면 1960년대 산업화초기는 이러한 독도와 관련된 사실위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나 1970년대에는 훼손되었던 적이 있다. 특히 1970년대 제3차 교육과정기(1973~1981)의 교과서는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을 거의 다루지 않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3차 교육과정기는 군사정권기로서 특히 중학교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체제가 되었으며, 군사정권이 교과서 및 교육내용을 통제함으로써 독도교육은 거의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의 군사정부가 교과서의 국정화를 통해서 교육내용을 통제해나가는 과정에서, 한일관계나 대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통제하였기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산업화 후기 시대를 보면, 1980년대는 독도교육은 다시 회복되었으나 4차 교육과정부터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나갔다. 5차 교육과정기에서도 독도관련 내용기술의 간략화가 연속된 것은, 교과 내적으로는 중학교에서의 통합사회과의 등장으로 영토 및 영해 관련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통합주제들에 비해 밀려났고 교과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군사정권의 이양기로 혼란기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5차 교육과정기의 고교 한국지리의 경우는 4차 교육과정기처럼 독도 및 동해 관련 또는 영토 및 영해관련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해당출판사가 기술하였던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내용

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제6차 교육과정기가 시작되면서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1990년대부터 독도교육 내용의 기술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보인다. 즉 1990년대 6차 교육과정기를 넘어서면서 내용의 폭과 깊이의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종래의 단순한 1~2개 문장과 사진 게재 중심의 사실적 지식 전달과 소략화 경향에서 벗어나, 심화학습 및 탐구주제로서 독도나 동해관련 내용이 채택되어 1쪽 이상으로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고교의 사정과 달리 6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과서는 여전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개발로 만들어진 국정체제하에서 내용의 통제가 심하였고, 더욱이 5차 교육과정기보다 더 강력한 통합사회과를 지향함으로써 독도 및 울릉도에 관한 지지적인 기술은 매우 제한되었으며, 독도는 우리나라 전도에서 조차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였다.

넷째, 1997년 7차 교육과정기가 시작된 이후 2000년대부터는 독도관련 영토교육의 내용들이 역사적 사실 및 사건, 관련 인물, 쟁점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지면서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 및 영해교육이 보다 많은 진전을 보였고 독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특히 영토 관련 이슈의 중심에 있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정당성 연구, 즉 우리나라의 영토로의 편입과정, 관리, 지배관련 사료의 제시, 고지도나 고문서를 이용한 독도에 대한 지명표기 방식과 내용의 탐색, 실효적 지배 방안, 동해의 역할과 지명표기 등 다양한 연구가 독도 및 동해관련 교과서 기술내용을 매우 풍부하게 하였다.

그리고 해방이후 중등 지리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중심내용들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 지를 분석해보면, 국토의 동단(위치)으로서 독도에 대한 언급, 어업 등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언급,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언급,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해양주권선에 대한 언급, 동해관련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져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기에 이어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인 제5차 교육과정기(1987~1992)에도 독도 및 동해관련된 이러한 중심 내용들이 매우 약하게 다루어지는 두 개의 특징적 시기 즉 단절된 시기가 나타난다. 그리고 5차 교육과정기의 단절기이후에는 6차 교육과정기를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도 및 동해 관련 영토문제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배경, 분쟁의 해결방안 등 다양한 범주의 독도 및 동해교육 내용 등이 점점 첨가되면서 독도 및 동해관련 지리교과서 내용이 풍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도교육의 개념을 “독도에 대한 교육”, “독도로부터의 교육”, “독도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해방이후 지금까지 중등지리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독도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요목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도에 대한 교육”의 범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독도의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 일본의 독도 도발, 독도 및 동해와 관련된 해양주권선, 동해관련 해양의 중요성 등의 내용들이 다루어져 왔으며, 3차와 5차의 단절을 제외하고는 “독도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6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지리 교과서에서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들은 학생의 탐구나 조사 등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식보다는 경험을 강조하는 “독도로부터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7차 교육과정기를 넘어 2000년대에 이르면 독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독도문제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방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심화된 “독도를 위한 교육”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해방이후 중등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들의 기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독도 및 동해 관련 교육내용을 학교급별로 체계화와 범주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초, 중, 고 학교급에 따라 독도 및 동해관련으로 다

를 내용들의 범주와 계열(스코프와 시퀀스)을 제시하여 독도교육의 체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한 지리, 역사 그리고 사회과를 넘어서 전체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을 체계화하고 종합적, 장기적, 교육적 처방이 되도록 한다.

둘째, 독도에 대한 교육내용과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입체적, 종합적이어야 한다. 교육내용이 단순한 지면기술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그래픽 자료와 직접체험, 간접체험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영토분쟁과 강대국의 영토도발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독도관련 내용은 민족의 역사이자 국토공간의 역사로서 기록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과거 정부의 교육내용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독도교육이 위기에 처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정부는 교육내용의 큰 틀과 방향만을 제시하는 방향제시자의 역할을 하고, 연구기관과 민간에서는 국민적,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교과서 개발자들이 다양하게 교육내용을 개발하도록 맡겨야 한다. 국민모두가 외교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의 역할과 외교의 역할을 조화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국내교육은 국민의 정체성 교육이 되고 국외교육은 국제적 대응에 대한 준비교육이 되도록 한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최근 세계 각국의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영토 및 영해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다음 세대의 국가를 이끌어 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국민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독도, 동해와 같이 영토적으로 예민한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성취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토교육 및 영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독도·동해 관련 영토교육은 단순한 영토 지키기를 넘어서 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공존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만 국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의 침탈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의 영토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반성적인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특히 일본의 독도에 대한 침탈이 지리 중심의 영토 및 영해교육과 향토교육에 국제정치적, 국제외교적, 국제법적인 지원을 통하여 공고하게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킨 전략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영토교육은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장단기 전략이 조화를 이루어야한다.

이 연구이후 영토교육이 지향하는 국가의 존속, 국민의 일체감과 정체성의 형성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교육에서의 독도 및 동해를 비롯한 영토교육의 전반을 내용, 방법, 방향의 측면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람직한 영토교육을 위한 교재의 구성과 개발에 대한 접근방법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권혁재, “국토지리 : 왜 배워야 하나?”, 『지리학』, 제26권 제3호, pp.253~258, 1991.
- 교육인적자원부, 해돋는 섬 독도, 2003.
- _____, 오늘도 해가 뜬 섬, 독도 : 한국의 동쪽 섬, 2006.
- 김경성 외 5인, 『중학 사회 I』, 법문사, 1966.
- 김기범, 독도영유권 갈등과 일본의 보수화 경향, 월간 아태지역 동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 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서울(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2005.
- 김돈, 日本의 自國史 교육과 교육목표, 역사교육, 100, 43-66, 2005.
- 김범수, 민주주의에 있어 포용과 배제, 국제정치논총, 48(3), 173-198, 2008.
- 김병렬·나이토세이츄,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다미디어, 2006.
- 김상호,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 일조각, 1956.
- 김상호·최기엽·김홍, 「1984 고등지리 I」, 금성출판사.
- 김재한 외, 「고등학교 사회」, 법문사, 2001.
- 김주택,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5, 133-184, 2007.
- 김주환 외 2인, 「공통사회(하) 한국지리」, 교학사, 1996.
-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법서출판사, 2000.
- 남호엽·김일기, 지역학습에 있어서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36(4), 483-494, 2001.
- 노도양 「중등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탐구당, 1949.
- 노도양 외 6인, 「중학 새로운 사회」, 사조사, 1971.

- 동북아역사재단,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 2008.
- 문교부, 「고등 국토지리」, 1979.
- _____, 「중학사회 I」, 1985 .
- 박동원 외 4인, 「고등학교 지리I」, 동아출판사, 1983.
- 박삼옥 외 4인, 「공통사회(하) 한국지리」, 동아출판사, 1996.
- 변태섭 등, 「중학사회I」, 법문사, 1966.
- 서태열, 세계화,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43(4), 5-29, 2004.
- 서태열, 김혜숙, 윤옥경,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2007.
- 서찬기·최기엽·조화룡·정수영·김홍, 「고등 한국지리」, 금성출판사, 1989.
- 신동욱·이정원·지태기, 「고등 표준지리I」, 동아출판사, 1970.
-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선, 2006.
- 오홍석·장재훈·김인, 「고등지리2」, 장왕교재연구원, 1985.
- 윤옥경, 해양교육과 영토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61-63, 2006.
- _____,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역할”, 대한지리학회지, 41(4), 491-506, 2006a.
- _____, “해양교육과 영토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61~63, 2006b.
- 이기석, 동해 해저 지명 분쟁과 영토문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1-10, 2006.
- _____, “동해해저지명 분쟁과 영토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1-10, 2006.
- 이기석 외, 「차기교육과정 개정관련, 해양교육 강화에 관한 연구」, 동해연구소

- 보고서, 2006.
- 이기석·오홍석·황만익·반용부·김종욱, 「고등 공통사회(하) 한국지리」, 보진재, 1996.
- 이기섭·이부성·정홍현,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 정음사, 1947.
- 이지호, 「최신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학문화사, 1950.
- _____, 「중등사회 생활과 최신 우리나라 지리」, 민교사, 1953.
- _____, 「고등 표준지리1」, 삼화출판사, 1972.
- 이찬 외 4인, 「고등학교 지리II」, 교학사, 1985.
- 임덕순, 지리교육에 있어서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11-13, 2006.
- 정갑,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부분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사조사, 1949.
- _____, 「중학교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생활」, 을유문화사, 1950.
- 조동규 외 2인, 「고등학교 지리II」, 고려서적, 1983.
- _____, 「고등학교 지리I」, 고려서적, 1984.
- 조선행·김귀선, “초·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의 해양교육 내용 연계성에 관한 연구,” 청주교대 과학교육연구소 논문집, 23, 1-20, 2002.
- 조성호 외, 「고등학교 한국지리」, 대한교과서(주), 2002.
- 조화룡 외, 「고등학교 한국지리」, 금성교과서(주), 2002.
- 주경식·한균형·오경섭·류제현, 「한국지리」, 능력개발, 1991.
- 최장근, 일본의 주변 3국과의 영토분쟁의 특성: 조어제도, 독도, 쿠릴열도 남방 4도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5, 383-401, 2007.
- 최복현, 「최신 국토지리」, 민중서관, 1956.
- 최현섭 외 14인, 「중학교 사회 1」, 고려출판사, 2001.
- 한국교육개발원, 「중학 사회1」, 문교부, 1985.
- _____, 「중학 사회1」, 1989.
- _____, 「중학 사회3」, 1991.

_____, 『중학 사회3』, 1997.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중학 사회1』, 1979.

황만익 외, 『고등학교 한국지리』, 지학사, 2002.

해방이후 교과용 교재에 나타나는
독도·동해 관련교육의 변천양상
- 중등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

2011年 12月 29日 印刷
2011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金	學	韶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02-2105-2700	FAX:	02-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	313-1984-1호

組版・印刷/ 비전테크 1588-023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